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철철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2월 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2월 8일은 민속 최대명절 설날이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실로 정겹고 반갑다. 복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공동 선(善)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 복을 받기 보다는 "많이 지으세요"라고 인사하자는 사람들도 많다. 복이란 지어야 하는 공덕의 산물이지 짓지 않는 복은 올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불경속에는 복을 설한 내용이 무궁무진하다. 마치 복을 찾아가는 지도와도 같다. 경전속에 나타난 복을 설날을 맞아 살펴본다. 〈편집자 주〉

福은 재앙마저 이기고…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뿐, 결코 신(神)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난문사불길흉경〉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절을 수리하라. 대중을 이간질하지 말고 서로 화합케 하라. 그리고 법을 청해 들어라. 이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니라. 〈중일아함경〉

복의 과보를 두려워하지 말라. 복의 과보는 인락의 원인이 되니 매우 사랑하고 공경할 만한 것이다.복이 없음을 두려워하라. 복이 없음은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이니라. 그러므로 복 짓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중일아함경〉

복 있으면 즐거우나 복 없으면 괴로워라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복을 받아야 안락할 수 있느니라. 〈중일아함경〉

부모는 좋은 복전(福田)이다. 〈성선천자소문경〉

복은 뜨거운 불이 태우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는다. 또한 홍수가 세상을 휩쓸어버려도 복은 떠내려 가지 않나니, 나쁜 임금과 함악한 도적이 남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을 때도 사람이 지은 복만은 훔쳐가지 못하리라. 〈별역잡아함경〉

아는 것처럼 실천하는 수행자는 그 공덕이 바다와 같나니 그들이야말로 잘 길들이는 이의 제자라 말한다. 칠흑같은 어둠에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항상 중생을 위해 진리를 가르치나니 그들은 출가자의 복밭(福田)이로다. 〈잡아함경〉

중생은 복을 근본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느니라. 복은 하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니 항상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되고,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장아함경〉

과수원을 만들고 다리나 배를 만들며 길 가까이 화장실을 지어 보시하면 항상 복을 얻고 죽어서 천상에 나게 된다. 〈중일아함경〉

범부로서 복을 닦지 않으면 재물이 궁핍할 뿐 아니라 삼악도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하지 못하다. 〈중일아함경〉

귀순불자 대부분 개종

남순지장회 해체위기…대책절실

작년 2월 36명 창립…8명만 남아
개신교 생활비·직장알선 등 지원

귀순불자들의 모임인 남순지장회가 창립 1년만에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 불교계의 무관심과 타종교의 적극적인 선교전략이 개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순지장회는 지난해 2월 36명의 귀순동포들이 모여 참법법회를 봉행하고 정기법회 및 사찰순례, 귀순동포 포교활동, 회원상호간 친목도모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회장을 비롯 8명만이 남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회장 김명철씨는 "그동안 제대로 모임을 갖지 못했다"며 "모두 생업에 바빠 시간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불교계의 무관심도 한몫 했다. 창립 당시에는 여러 스님과 재가법사들이 후원을 약속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여기에 개신교계의 조직적인 선교전략이 거들었다.

남순지장회 회원 박수현씨(경희대 한의대 휴학)는 "남순지장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거의 교회에 나가고 있다. 생활비 지원과 직장 알선 등 교회의 도움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A교회는 귀순 학생들에게는 매월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생활지원비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이 교회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한 귀순자는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니까 고맙지만 신앙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 장학금을 안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와주겠다는 다른 단체가 있으면 나가고 싶다"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귀순자들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정착금과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1천7백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별도로 가져온 정보 및 물자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귀순자들이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적십자사와 종교단체 등 민간기구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불교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개신교계는 귀순자 대상의 선교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순복음교회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초부터 정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관계자는 △자매결연 △직업교육 수료후 전원 취업보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생활비와 직업훈련비 지원, 1교회 1귀순자 자매결연 사업을 벌이고 있다.

94년 귀순한 한용수씨를 후원하고 있는 초격스님(광명선원 원장)은 "최근 기독교인 후원자가 한씨의 생활비는 물론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다. 한씨가 응했을 경우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불교인의 후원이 없음을 아쉬워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26일 실시하는 자선탁발을 통해 모금한 성금을 귀순불자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일에 쓴다는 계획이다. 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자선탁발로 마련된 성금은 북한동포 및 귀순동포, 국내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순지장회 지도법사단장 법타스님(광불협회장)은 "올해는 각사찰에서 한사람씩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로 탈출,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만도 7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대량탈북에 대비해 교계는 종단 또는 사찰차원의 정착 지원금과 프로그램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고속철 경주역사 화천리 확정

건교부, 문화재 훼손 최소화·경관 고려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이 '화천리 노선'으로 최종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정부고속철도 경주구간과 관련,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계획노선인 형산강노선의 대안으로 화천리 노선(58.9km)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93년부터 문화재 훼손 시비에 휘말려 곡절을 겪은 이 구간의 노선문제는 4년만에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락됐다.

환경·소비자 등 분과위 활성화

종단협 정총 진흥회 참여 대의원 불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 1월 30일 조계종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환경·소비자·공명선거·남북교류·인권위원 등 각종 위원회 활동의 강화와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교토회의 참가 △국제난민 및 국내 극빈계층 구호기금 모금 등을 97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에따른 예산 4억5천8백여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종단협의회 가입 28개 종단 가운데 조계 태고 관음 총지 원효 보문종 등 14개 종단 대의원 66명(위임자 포함, 전체 대의원은 126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천태 원융 총화종 등의 일부 대의원들은 종단협의회 사무실까지 나왔으나, 총회장소가 조계종 청사로 정해졌다는 이유로 총회에는 불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종단진흥회 건을 기타사항으로 논의하고 묵빈대처(默賓對處)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1년 이상 회비미납 및 총회 이사회에 불참한 미륵종 열반종 천화불교 등 3개 종단을 제명조치했다. 〈관련기사 3면〉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한국의 美를 상징하는 민족문화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이 땅의 천년 불심이 스며 있습니다. 불교문화재는 그래서 성보입니다.

불교문화재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언(無言)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숨결과 예지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과 정서의 원형질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느끼고 無言의 설법 듣는다"

현대불교신문은 이같은 의미를 대중속에 심고 확대하기 위해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매월 주제를 갖고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이 행사는 종교적 특수성과 예술적 보편성이 만나 이룬 민족문화의 핵심으로 다가가는데 한 몫을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 알기사업'의 하나로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에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월 별 주 제

2월 : 가람배치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통도사
3월 : 한국의 색 · 선 · 면(목조각의 조형미와 단청)—금산사 내소사
4월 : 한국인의 얼굴(석굴암의 신비와 남산의 돌부처)—석굴암 남산
5월 : 禪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대흥사
6월 :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부석사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뜻—제주 존자암터 外
7월 : 나무결에 새긴 한국인의 마음결—해인사
8월 : 신라의 바람(顔), 바람(風)—황룡사지 감은사지
9월 : 무량으로 이어지는 백제 불심—무량사
10월 : 한국인의 삶과 죽음(석등 · 석곽 · 부도의 의미)—화엄사 연곡사
11월 : 누운 부처님 언제 일어나려나—운주사
12월 :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뜻—제주 존자암터 外
참여 전문가 토론회

2월 테마여행—통도사

영축산 기슭에 자리한 불보종찰 통도사의 가람배치는 독특합니다. 냇물을 따라 동서로 길게 상로 · 중로 · 하로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과 불상을 안모신 텅빈 대웅전(국보 290호)에서 통도사의 근본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웅전 현화문 축대의 정교함과 영산전의 팔상탱화, 가섭존자가 미륵불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의 영산탑, 감지금니화엄경변상도 등 통도사 국보 · 보물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람과 자연과 인간과 불심의 조화에 또한번 감탄하실 겁니다.

통도사 박물관장이며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인 법하스님이 안내 강의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 첫 회에 동참하시어 97년을 더욱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참가 안내

◇출발: 2월 23일(일) 오전 7시 · 조계사 앞
◇안내: 법하스님(통도사박물관장) ◇회비: 3만원(중식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한주여행사 (02)738-81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5333(임동수)
입금후 한주여행사로 연락바랍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 (주)한주여행사 후원 :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장애인 포교 '움트는 새싹' 15면
불교다이어트 책 발간 12면
다라니경 한국작품 확실 6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차안에서 느끼는 TV, 영화, CD원음의 감동-
현대 카AV시스템!
비디오CD,TV, FM, AM, TAPE, 음악CD 6매 자동선곡까지-
국내 최초 일체형 현대 카AV시스템
오디오로만 만족하던 카오디오에서 최첨단 비디오까지-
현대 카AV시스템은 생생한 영화, TV에서 6장 CD자동선곡의
선명한 음악감상까지 자동차 생활에 최고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달릴때에는 원음의 감동으로, 머물때는 생생한 영상으로
메일타는 자동차 -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가격인하
■카AV시스템 (HAV-41)
■비디오CD체인저(HVC-200A)
■CAR-TV(HLT-51)
• 장착비는 별도임
• 주의 : 운행중 TV시청은 위험하오니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시청하십시오
뮤직비디오
영화
오페라
일선전국 블로백 서비스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HYUNDAI
대리점
● 경기도 이천시 여천무체국 사서함 1010호
전화사업본부 Tel 0336)39-5662/1

사 설

평일 공무원시험 철회하라

총무처가 기독교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일자를 평일로 정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직장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고 수험장소와 교통 등 수험환경을 고려하여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모든 국가시험일을 일요일에 실시해 왔다. 지극히 타당한 국가시험정책으로 상식적인 관례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관습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민정부'를 자칭하면서 출범한 현 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훼불사건이 벌어지더니 각종 기독교 편향정책으로 불교계등 다른 종교인들의 반발을 여러 차례 받아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가 시험일의 평일 결정은 "기독교 장로인 김대통령과 김한규 총무처 장관의 용단의 결과로 기독교계는 크게 환영한다"는 기독교계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그 내막을 잘 알 수 있다.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김대통령이 구랍 2일 국민일보 창간 6주년 기념 대담에서 "향후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정부주도의 행사나 시험을 가능한 한 평일에 실시하도록 적극 검토하였다"고 밝혔고, 지난 15일 김한규 총무처 장관은 기독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장로라는 입장에서 복음사역을 위해 파송되었다는 의무감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볼 생각"이라고 종교 편향적인 삐뚤어진 국가정책관을 피력한 바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는 지난 93년부터 '국가 및 기관행사의 주일 실시반대운동'을 펼쳐 온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의 끈질긴 로비와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복협의 이같은 운동으로 초·중등교사 임용시험과 특수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도 지난 94년부터 평일에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펼치는 현 정권의 '문민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일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무원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종교의 입장만을 염두에 둔 불합리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야권 3당은 지난 24일 일제히 이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에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현 정권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째서 정권 말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종교 불평등 정책으로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가? 여기서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문제된 7급 공무원 시험 평일 실시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특정종교의 편을 든 점을 시인하고 깊이 참회해야 한다.

둘째, 더이상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국가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주일성수'를 이유로 국가고시와 정부행사가 평일에 치러져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분명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종교계나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한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기도 하다.

셋째, 국민의 심부름꾼인 총무처 장관이 시험일자 공고가 있기 전에 이미 기독교계 언론에 장로로서 "한국 교회에 부응하는 좋은 소식이 있을 듯"이라는 등 특정종교를 옹호하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하루빨리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현 정권은 불교계를 비롯한 수험생 등 이해관계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올해는 더군다나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문화유산의 해'로 정해놓고 외래문화의 중심인 기독교의 입국론을 내세운다면 현 정권은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다. 위정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불교계도 보다 적극적인 범불교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공무원시험 평일 실시

공무원시험은 여타 기업체 입사시험과는 달리 학력 경력의 제한없이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녀라면 누구라도 시험을 볼 수 있다. 또 일요일에 시험을 치르도록 재학생 직장인에도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올해 7급 공무원시험을 평일에 실시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그 배경이 기독교계서 요구해온 '일요일은 쉬며 교회가도록' 한 처사라는 소리도 나와 반발이 더욱 거세다. 공무원시험 평일실시에 대한 여론을 듣는다. 〈편집자 주〉

무원칙 행정 시정돼야

청화 〈조계종 종회부의장〉

총무처장관의 공무원시험 평일실시 결정은 2천만 불자는 물론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처이다. 다만 국가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처의 무원칙한 행정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총무처는 무원칙 행정의 표본인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만약 불교계와 야당, 대다수 언론이 제기한 이번 문제를 간과하고 평일시험을 강행한다면 지난해 '검정고시 시험일자 변경기도' '교육개혁위원회의 신학대학원 설립기도' '김대통령의 종교편향정책' 등의 연장선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장로장관의 행태 '개탄'

혜창 〈조계종 총무부장〉

국가고시는 직장 고시준비생의 불편과 교통혼잡을 피해 오래전부터 일요일에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올해 7급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기독교계의 요구에 따라 평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과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특히 이번 총무처장관의 발언내용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종교간의 중립보다는 기독교의 장로 신분이 앞서고 있음에 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공인이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을 추구하기보다 자기 종교만을 우선할 경우 국민의 분열과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장관 해명·참회 있어야

지선 〈전불련 상임의장〉

지난 95년에도 검정고시 날짜를 4월16일에서 5월5일로 바꾸었다. 4월16일이 부활절이니 기독교명절에 교회를 가도록 해야지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시험날짜를 바꾼 전례에 대해 불교계의 지적과 반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박탈이며, 종교간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처사이다. 그러므로 국가고시의 평일 실시는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것이다. 종교간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김한규총무처장관은 본인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해명, 참회해야 할 것이며, 김영삼대통령은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잇단 편향시책에 분노

법현 〈음성 고심사 주지〉

일단 공무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고 전국민이 신앙하고 있는 모든 종교를 살필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종교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전 국민앞에 사과하고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95년도 초파일 행사날 검정고시를 실시한 것에 대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12월에 성탄절 특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초파일 특사는 폐지돼지 않았는가.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특정한 날에 실시되던 특사는 폐지됐다고 했음에도 성탄절특사의 실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종교편향정책에 명확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 반정부정서 확산

김재일 〈재가불자연합 상임위원장〉

국가의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공무원 시험을 특정종교의 편의를 위해 평일에 실시하는 것은 공평무사해야 할 공직사회의 도리가 아니다.

95년 검정고시 시험을 부활절을 피해 실시하려 했던 적도 있어서 자칫 총무처의 이번 결정이 불교계의 반정부 정서의 확산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정책 당국자는 파악하여야 한다.

공무원시험 평일 실시를 종교편향정책으로 간주해 철회운동을 벌이겠다.

반대여론 묵과말아야

이상번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우리나라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대통령의 무분별한 개인적 신앙행태가 전체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질서를 깨뜨리고 심각한 종교갈등을 낳고 있다.

이번에 자행된 총무처 7급공무원 공개채용 시행일자를 '주일성수'라는 특정종교집단의 주장과 요구에 의해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치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회원 모두는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총무처의 공식사과와 7급공무원 공개채용 평일실시 계획을 전면백지화 하고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편향된 종교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직장인 일요시험 '선호'

황인영 〈흥국생명 생활설계사〉

공무원직은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신랑감 신부감의 좋은 조건에 꼽히기도 한다. 그래서 수천 수만명이 학교와 직장에 다니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시험을 치른다면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 전업 취업준비생이 돼야한다. 국가 인재를 등용하는 국가고시마저 빈익빈 부익부라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하나만을 위한 행정이 아님을 총무처장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혜창총무부장(사진 오른쪽)스님은 지난 1월24일 총무처 윤웅규 차관의 예방을 받고 7급공무원 시험일자와 관련 불교계의 반발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목어

봄이오고 있는데

2월4일은 입춘이다. 대지에는 봄이 오고 있는데, 우리네 살림은 거꾸로 얼어붙고 있다. 노동법 파동에 이어 한보사태가 터져나와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다. 사상최대의 금융사고 '한보태풍'에 휘말려 봄·겨울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임금체불업체 급증으로 8만여 근로자가 우울한 설을 맞게 됐다니 그저 답답하고 추울 뿐이다.

이런 심각한 경제위기 앞에서 정치권은 정쟁을 일삼고, 특혜대출 대후에 대한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채 떠도는 말만 춘설처럼 난무하니 국민은 어지럽기까지하다. 이럴때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는 없을까.

어느날 한 고승이 제자를 데리고 뜰을 거닐고 있었다. 때마침 바람이 일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노 스님은 낙엽을 한장 한장 주워 소매속에 넣었다. 제자가 말했다. "스님 제가 곧 쓸터이니 그냥 놔두세요." 그때 노 스님은 호통을 쳤다. "이 멍청한 놈아, 곧 쓸겠다고 말만 하고 섰으면 뜰이 깨끗해지냐. 한장 주으면 한장만큼 깨끗해질 것 아니냐."

그렇다. 허울좋은 말잔치로 되는 일은 없다. 거기다 '책임회피' '남 탓하기'까지 겹치면 오히려 과실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에서 나서 쇠를 먹어 들어가듯, 방종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제 발로 걸어서 지옥으로 간다."

자업자득을 가르치는 〈법구경〉의 말씀이다.

'한보 태풍'을 잠재우려면 먼저 관련자들이 진실로 참회하여 양심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개인도 국가도 회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모두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일에 충실하자. 그러면서 봄맞이 채비를 하자. 미당 서정주시인은 입춘을 이렇게 노래했다.

'솔나무는 오히려 너같이 젊고/스무날쯤 있으면 매화도 핀다/천년묵은 고목나무 늙은 흙위엔/난초도 밋밋이 살아 나간다'〈입춘 가까운 날〉

시를 읊으면 마음이 여유로워 진다. 그러면 봄이 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경제를 살리는 지혜도 생기지 않을까.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현대만평

박구원



참! 발상도 7급이네!

봉선사 통신강원

통신강좌 전문의 불교공부

■ 스님을 위한 전문반
●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의전과

■ 재가불자를 위한 교양반
● 교리강좌 ● 경전강독
● 교양의식 ● 교양불교사

문의처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

아시아나 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97년 2월 14일, 2월 21일 (2회)

인도 불교성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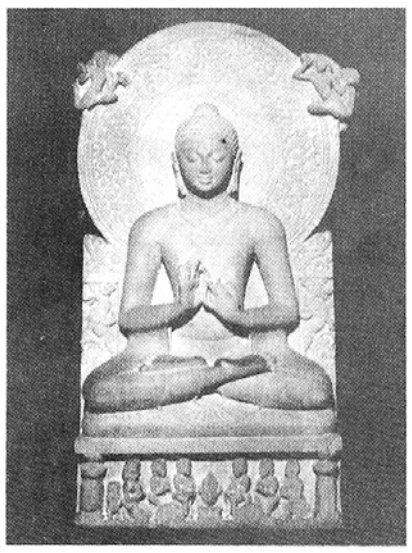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
인도정부관광국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 최초로 운항하는 인도 특별 전세기로
저렴하고 편안하게 성지순례를 다녀오십시요

특 전
1. 서울 - 델리 직항으로 빠르고 편안함.
2. 인도 국내선 이용으로 야간기차 이동 없슴.
3. 성지지역 최고급 호텔 및 최신버스 이용으로 안락함.
4. 한식 제공으로 식사문제 해결.
5.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안내인이 행사 진행으로 품격 높고, 차질이 없는 순조로운 성지순례 안내.

※연로하신 분에게는 특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불교 성지순례전문 여행사는
항상 불자님의 뜻깊은 성지 순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참금 1차 : 2월14일 - 2월 22일(8박9일) 139만원
2차 : 2월21일 - 3월 1일(8박9일) 148만원

성지순례일정(9일간)
제1일 서울 - 델리
제2일 델리 -기원정사
제3일 기원정사 - 가비라성 - 룸비니
제4일 쿠시나가르 - 바이샬리 - 파트나
제5일 파트나 - 나란다 - 왕사성 - 부다가야
제6일 부다가야 - 니린선하 - 바라나시 - 녹야원
제7일 녹야원 - 갠지스강 - 아그라
제8일 아그라 - 델리
제9일 델리 - 서울
※ 상세한 일정은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예약문의 :
▲ 충 청 권 ▲ (주)금남관광 (042) 252-7780
혜초여행사 (02) 544-1533
▲ 호 남 권 ▲ (주)송광관광여행사 (062) 222-7775

진흥회 행보 "화합분위기 냉각"

종단협 정총 진흥회측 불참 '안팎'

조계종 독주 이유 내세워… '초파일봉축' 고비

월주스님 '묵빈대처' 일관 사실상 분리 인정

지난 1월30일 종단협의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종단협의회(회장 월주)와 종단진흥회(회장 일공)가 분리냐, 재결합이냐의 기로에 섰다.

월주스님은 이날 총회에서 종단진흥회에 대해 '묵빈대처'(默賓對處)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종단진흥회가) 없는 것만 못하지만 종단협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신교의 교회협의회와 교회연합회가 별도로 조직돼 활동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그쪽(종단진흥회)이 발전하면 크게 보아 불교발전이지 않느냐"며 이후로도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것에 유념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종단협의회와 종단진흥회의 분리를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주스님의 이같은 선언은 종단진흥회에 가입된 종단이 2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불교내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조계종이나 종단협에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월주스님은 "정부나 사회단체 정당 등에서는 사안발생시 종단협과 조계종 등 큰 종단과 협의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물론 종단진흥회에 대해 '분파행위'라고 규정하고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능력이 되면 수행 포교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또다른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월주스님은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의 분열상을 노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선주자들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매달리는 행위는 불교의 자주성을 팽개치는 행위"라며 "11월쯤 가면 어느 후보가 불교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후보인지 밝혀질 것이고, 그 사람에게 투표하면 된다"고 강조, '대선중립론'으로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월주스님의 묵빈대처에 대해 종단진흥회측에서도 굳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흥회 사무총장 남정스님(총화종총무원장)은 "총회장소를 종단협의회 사무실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일언반구 답변도 없어 서운함이 크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진흥회는 회의장소를 조계종 총무원청사로 정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렇지 않아도 조계종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벌러온 진흥회는 회의 장소를 변경치 않을 경우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불참은 현실로 나타났다. 이날 열린 종단협의회 97년 정기총회에는 종단진흥회에 참여하고 있는 천태종 원융종 총화종 등 종단협의회 가입종단 가운데 절반의 종단이 불참했다.

종단진흥회는 지난해 4월 창립 이후 종단협의회 외의 또다른 종단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크게 내세우는 이유는 조계종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 독주 때문에 또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은 불교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비판이 오히려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단진흥회는 또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비용의 조계종 전담은 초파일 봉축행사를 조계종 위주의 행사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초파일 봉축행사의 별도 봉행 뜻을 내비치고 있다. 조계종 압박용이냐, 아니면 결별을 위한 명분쌓기냐의 관단은 아직 이르다. 따라서 종단협의회와 종단진흥회의 분리냐, 재결합이냐는 초파일이 막바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조계종 독주론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며,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모종의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월주스님이 일방적인 친여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의 작용이 불교계 분열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까지 분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성운 기자



◇지난 1월29일 법련사 대웅전에서 열린 청불회 법회에서 법정스님이 법어를 통해 현 시국과 관련 정부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노동법 개정 절차 지켰어야"

법정스님 청불회 초청법문

청와대 불교신자들의 신행모임인 청불회 정기법회에서 법정스님이 노동법 시국과 관련, 정부에 대해 따뜻한 충고를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월29일 서울 법련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법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노동법 안기부법을 비롯 11개 법안을 변칙처리했다는 라디오뉴스를 듣고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앞으로 시끄럽겠구나고 생각했다"며 "그렇게 서둘러서 처리했다면, 일방적 강행의 결과도 예상하지 못했는가"고 질책했다.

법정스님은 이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변칙처리한 것은 정치적 미숙"이라고 지적하고 "목적이 좋다면 거기에 따르는 수단과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 날날의 과정이 곧 목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청와대의 노동 관련 주무 비서관인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을 비롯 배재욱 사정비서관 등 1백여명의 청불회 회원이 참석했다.

이에앞서 법정스님은 법어 서두에서 "여러분들의 뜻이 청정하다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청불회를 창립했다는 말에는 신경쓸 것 없다"며 회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안 광 석
〈전각가〉

내가 그 작자(作者)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설법할 때면 법문을 청하는 거양법사(擧揚法師)가 아래와 같은 게송(偈頌)을 외우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다.

'我有一卷經, 不因紙墨成, 展開無一字, 常放大光明'

經의 근본을 읽자

나에게 경(經) 한 권이 있는데, 그 경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펴놓아도 글자는 한자도 없지만 항상 큰 빛을 발한다. 이 경은 사람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삼라만상(森羅萬象)과 존재재일반(即存在一般)이 실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경이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일반(自然一般)에 의한 제일원리(第一原理)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만물에 함유(含有)된 신성(神性)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일승적(一乘的)인 원만무결(圓滿無缺)한 불성(佛性)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경을 이른 말이다.

만유이전(萬有以前)부터 만유이후(萬有以後)까지 또 만유와 더불어 촌음(寸陰)도 분리해 따로 있지 않고 만유의 은현(隱顯)·기멸(起滅)에 증멸(增滅)도 없는 그것을 이르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도 한다.

이 마음은 우리가 물질을 상대로 하는 마음도 아니요, 또 사려(思慮)의 내용은 우리의 식장(識藏)인 마음도 아니요, 우리의 의식을 가르친 바도 아니다. 우주를 통칭할 때 수명(數名)해서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그 게송 가운데서 경(經)이라고 한 것이다. 독서의 요체는 이 경을 읽을 줄 알아야만 된다. 과거에 있어서도 말마디나 하고 간 선각자들은 누구도 이 경을 읽지 아니한 분은 한 분도 없다.

또 '심불반조(心不反照) 하면 간경무익(看經無益)'이란 말이 있다. 경을 설사 읽는다해도 독서로 자기가 마음의 경 원본(經原本)을 읽을 줄을 모를 때는 결국 앵무새의 말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남이 적어 놓은 책을 읽고 자기 마음의 원본(原本)에 비추어 보다 계합(契合)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것을 간직해 두어야한다.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남이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노릇이며 자신의 독창력을 말살시키는 비극을 저지르는 행위가 되고 만다.

남이 적어 놓은 글이 난해하다고 해서 슬퍼할 하등(下等)의 이유가 없다. 남의 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용이한 일이 아니며 또 보통의 공부로는 불가하며 소습(所習)의 부문(部門)이 다르면 같은 글을 읽었어도 이국어(異國語)를 읽는 것 같기 때문이다. 경 원본을 읽는 것이 곧 참회(懺悔)이다.

시 론

'세계의 쓰레기통' 북한

1월 16일 외무부는 북한이 작년 11월 대만전력공사와 계약을 맺어 대만산 핵쓰레기 6만 드럼을 북한에 반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대만으로부터 가져올 핵쓰레기 6만 드럼은 그동안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핵쓰레기의 양과 맞먹는 엄청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받을 돈은 6,900만달러에 불과하다. 과연 이러한 결정을 내린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며, 자신의 핵 폐기물을 남의 땅에다 가져다 버리려는 대만은 양심이 있는 나라인가?

금수강산 核오염 안된다

대만의 핵폐기물 반출문제는 여러 곳으로부터 산발적 반대에 봉착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항의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주변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조도 얻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미 북한기술자 여러 명이 핵쓰레기를 선적하기 위해 대만에 도착했으며 핵쓰레기는 남포항으로 운송된 후 황해도의 폐광에 매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적할 수 있는 안전한 배도 없고 더구나 붕괴의 위협이 가장 높아 위험하기 그지없는 폐광에 핵쓰레기를 매립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대만 외교부는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의 강력한 외교공세와 관계없이 이를 강행할 것임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핵폐기물 이전계약은 순수히 상업 행위라고 전제하였다.



이 춘 근
〈政博·군사문제전문가〉

사실 북한은 이미 93년부터 프랑스, 중국,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로부터 수천 수만 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마구잡이로 반입해 왔다. 톤당 200불 정도를 받고 월 1만톤 이상을 반입하고 있다하니 북한은 이미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슨 종류의 쓰레기인지는 몰라도 오스트리아와는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운송비만을 받고 매월 5천톤 이상의 쓰레기를 들여온다고 한다.

북한의 쓰레기 반입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피폐한 북한의 국토는 오염이 극에 이르게 되고 쓰레기 썩은 물이 밑으로 흐르는 땅위에서 곡식이 제대로 자랄 가망성은 없는 것이다. 북한의 오염은 곧 남한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북한의 핵쓰레기는 남한의 안전에도 궁극적인 위협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영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민족의 영토인데 북한은 지금 처리에 수백년이 걸린다는 핵쓰레기를 마구 가져다 버리려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쓰레기 반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쓰레기의 반입도 막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얼마나 굶주리면 북한이 핵폐기물과 쓰레기까지 도입하게 되었냐는 북한동정론도 일부 제기될 수 있다. 핵폐기물 반입 중단을 위해 쌀을 보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나올 법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주장들이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일지 모르며 이는 북한이 처한 문제에 합당한 처방이 되지 못한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쌀을 가져다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한 두해의 흉년과 홍수 때문에 유래한 것이 아니라 북한지도층이 그토록 바꾸기 싫어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를 바꾸어주어야 해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북한 지도자들의 태도에 달린 것이다.

국제적인 협조, 그린피스 등의 국제적 단체들과의 협력방안 또한 여의치 않다. 북한에 쓰레기를 돈주며 팔고 있는 나라들의 면모를 보라.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들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그린피스등 몇몇 환경단체들은 핵폐기물에만 반대하는 단체가 아니라 원자력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필수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며 지금 북한에 40억불 상당의 핵발전소를 지어주고 있는 중이다.

정부 강력대응책 세워야

북한의 핵쓰레기 반입에 대한 대처는 강력하고 준엄한 것이어야 한다. 대만에 대한 강경대응이 필요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경수로 건설, 남북 경협 등의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 북한 지도층과 국제사회의 이기주의는 인도주의와 국제적 도덕률에 호소하기에는 아직도 그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생활속의 불교 (108)

제 손으로 꿴 코뚜레에서 풀려나고 싶거든

"자기가 강도 짓하고 붙들려 가면 누가 죄값을 치러야 하겠는가. 결국 자기가 했으므로 자기가 치러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다라니 찾고 관세음보살 찾는가. 관세음보살, 다라니가 없는 게 아니라 이름아닌 이름이니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서 부처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관세음보살도 다라니도 다 함께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둔다.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 이 되갚음은 철칙이다. 터럭만큼의 어긋남이나 예외가 없다. 뿌린 씨앗은 결코 썩지 않아서 적당한 조건을 만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이번 생을 넘어 숙세(宿世)로까지 이어진다. 아무리 오래된 묵은 씨앗이라도 거기엔 반드시 과보(果報)가 따른다. 그건 부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앞에서 열심히 빌면 혹시라도 죄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닐까? 천만에 말씀이다. 부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다. 아니, 지은 죄업을 사면해주고 싶다해도 그렇게 되질 않는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은 철칙이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고로 부처님 전에 엎드려 빌어도, 고백을 해도 사면을 기대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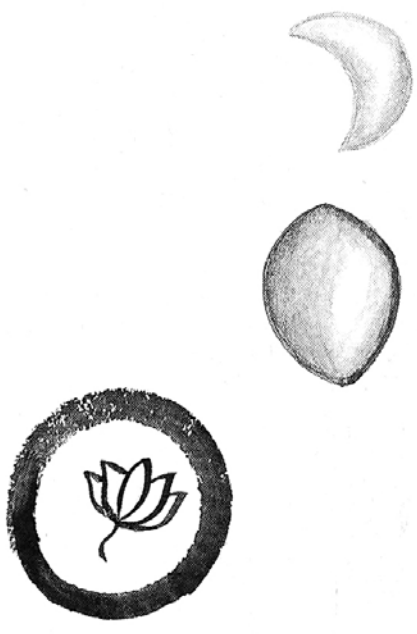
가령 착한 일을 많이해서 선업을 쌓으면 악업과 상쇄되는 것은 아닐까?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받는게 되갚음의 철칙이다. 상쇄란 없다.

만일 선업과 악업의 상쇄가 가능하다면 부처님께 열심히 빌어서 사면을 받을 수도 있고 보시를 많이해서 물타기를 할 수도 있으며 관세음보살님 찾고 다라니를 염송해서라도 죄업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씨는 선한 씨대로 썩지 않고 악한 씨는 그것대로 또 썩지 않는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하느님이라도 안된다.

일상 생활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일체의 괴로움, 온갖 번뇌는 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 열매로 익은 것이다.

고로 내가 거두어 들여야 한다. 만약 그걸 거두려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되었다가 더 많은 열매로 나를 찾아온다. 그런데 우리들은 선업의 과일은 즐기면서 악업의 과일은 거두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부하고 괴로워한다. 심지어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한다. 내가 뿌린 것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그러나 남이 뿌린 씨앗이 내 열매로 다가오는 법은 절대로 없다. 그게 가능하다면 부처님께 빌어 죄업을 사면받는 예외도 가능해진다. 기복행위도 타력신앙도 다 맞는 얘기가 된다. 대신 불법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인과의 철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철석같이 믿어야 한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둘뿐이며 따라서 일체의 경계는 다 내 탓이라는 부처님의 간곡한 가르침을 받들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철칙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무명을 벗겨주고자 하셨다. 부처님의 자비는 죄업을 사면해주는 자비가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주는 자비이다.

따라서 그 가르침에 진심으로 귀의하는게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는 업의 당체가 텅 비었음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철칙을 말씀하신 한편으로 본래의 성품엔 업조차 붙을 자리가 없음을 밝히셨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본다면 인과의 그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가 다가오는 순간순간마다 발목이 잡혀서 절쩔맨다. 모르기에 놓아버릴 줄도 모르고 놓아도 놓아지질 않는 것이다. 놓기는 커녕 경계마다 생각 생각을 지어 제 등짐으로 지고 간다. 마치 스스로 제 코뚜레를 꿰어 놓고서 풀어달라고 음메 음메하는 것같다.

그것이 싫다면 지심참회해야 한다. 마음 안의 부처에게 진심으로 귀의함으로써 업의 그물을 녹여 나아가야 한다. 매 경계마다에서 가르침을 사무치게, 뼈저리게 실천해야 한다.

협찬 : (故) 최 홍 남

법회 안내

연동사서울포교당(02)383-6880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1시
성지순례 매월 10일
미타재일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1시
〈불교교양대학강좌〉
불교입문강좌
매월 첫째주 월 오전11시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 오후2시
한문특강 매월 셋째 주 금 오후3시

용선사(02)394-9765

화엄안등기도 1~3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거사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전11시
기초교리강좌 매주 월, 금 오후2시
성지순례법회 매월 1회
철야기도법회 매월 셋째주 토
오후6시~다음날 오전5시 회향

보광사(0667)763-1192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격주 토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월 토 오후4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7시

분황사(0561)42-9922

인등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약사회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
자원회법회 매주 금 오전10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오사(053)784-3669

다라니기도 매월 1일 오후8시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자비도량참법기도
매월 15일(음) 15일간 오전10시
생활예법지도 및 참회기도
매월 그믐(음) 오후7시30분

금광사(062)375-3191

정기법회 매월 7일 오전10시
입시법회 매주 토 오후9시
청년법회 매월 둘째 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부산대불련 가두캠페인(1월 23일~29일) 1,830,670원 △황규순 2,000,000원 △마경숙 1,000,000 △안승원 162,000원 △김경숙 100,000원 △남노이 100,000 △이재성 100,000원 등 30명 4,376,000원

〈29일 현재 총 70,728,319원〉

- 후원금 접수 : (02)3672-5373
- 국민은행 : 818-21-0179-960 예금주 : 최석호



월주스님 이홍구대표와 노동법 논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월 27일 이홍구 신한국당대표의 예방을 받고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견해서를 전달했다. 월주스님은 견해서를 통해 "노동관계법은 원만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함종한 신한국당불교신도회장, 박헌기 황규선 전용원 의원이 함께 했다.



불교시민단체협 신년하례회

불교시민단체협의회(대표 법타)는 지난 1월 24일 송현클럽에서 성타(공추불 회장) 정덕(자비의전화 회장)스님을 비롯 권오현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김명철 남순지장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는 연기영교수(동국대)가 '현단계 불교 시민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태고원 정릉2동 어린이집 개원

한국불교태고원(이사장 이규범)이 위탁운영하게 될 성북 구립 정릉 2동 어린이집이 지난 1월24일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선우스님(성북구 사암련 부회장) 진영호 성북구청장 김선관 어린이집협회 회장 유재건의원 박수왕시의원 김광식 안돈구 구의원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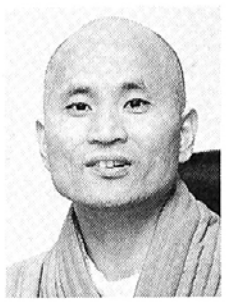


고승서간집 '삼소굴…' 출판기념회

명정스님 저서 한국근세고승서간집 〈삼소굴소식(三笑窟消息)〉 출판기념회가 지난 1월 29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렸다. 설봉 경봉 구하 월하스님 등의 서간문을 담고 있는 〈삼소굴소식〉 출판기념회는 설정 조계종종회의장 청하 전계대화상 월파 통도사 주지 무비 승가대학장 월탄 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도약 이룰 포교방안 마련"

조계종 초대 포교연구실장 효종스님



"한국불교도 신명나게 해야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포교는 물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국제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입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에 취임한 효증스님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원력을 바치겠다고 피력했다.

스님은 최우선 사업으로 "신도의 입문교육을 위해 이미 발간된 〈불교입문〉에 이어 심화교재인 〈불교교리서〉를 편찬하고 신도교육 체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신도의 입문 교육체계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겠다"는 포교연구실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효종스님의 포교사업계획은 △통일법요집 발간 △법회와 설법 지속적 발간 및 질적 향상 △ 신도교육과 조직화 등 신행활동체계 구축 △재적사찰갖기운동 전개 △해외포교사업 전개 등이다.

효종스님은 76년 고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87년 개운사 주지, 93년 대만 동국선원 입승을 역임했다. 95년 미국에서 유학중 이번 조계종 포교연구실장에 임명됐다.

김중근 기자

교차로

전불련 사업계획 승인



지선 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 스님은 지난 1일 대불청 만해 교육관에서 제5차 정기 대의원회의를 갖고, 신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을 승인했다.

논산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지형 소림정사 주지는 지난 1월 26일 논산 훈련소 호국연무사 주최 새해 첫 수계법회에 수계법사로 초청돼 4천명의 훈련장병에게 계를 내렸다. 또 스님은 호국연무사에 본존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등 3천여만원 상당의 불사금을 희사키로 약속했다.

불우이웃 100가구에 성금



춘광 삼광사 주지는 지난 1일 설맞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갖고 1백 가구를 선정, 성금을 전달했다.

인천 종무원장에 취임



해월 대원사 주지는 지난 1월 29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인천 종무원장에 취임했다.

선서화 展 준비차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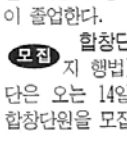
경암 위싱톤 보림사 주지(대원불교대학 미주분교장)는 오는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법련사에서 개최하는 선서화 도예전시 준비차 지난 1월 25일 귀국, 5일 출국한다.

日 동방 학술상 수상



김 지 견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일본의 동방연구회가 선정한 동방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3월 26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5일 다보법회서 강연



권기종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오는 5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다보법회 초청법사로 법문한다.

대원대 美분교 졸업식 참석



허성구 대원불교대학 학장은 오는 12일 미국 워싱톤 소재 대원불교대학 분교 졸업식 참가차 출국해 22일 귀국한다. 한편 허학장은 지난 1월 25일 본교 졸업식을 거행, 9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33차 정기총회 개최



한기호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은 지난 1월 28일 서울 한글회관 강당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협회 중점사업으로 전문신문 질적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회원간 상호협조를 위해 전문신문금고를 발족키로 했다.

지광스님 입적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정지광스님이 지난 1월 29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숙환으로 입적했다. 세수 72세 법랍 59세. 스님은 지난 87년 기능보유자로 인정됐다.

인사

한국불교태고원 △사무국장 김국현

게시판

행사 즐업식=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은 오는 14일 오전11시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제6회 졸업식을 거행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중국어과 신문방송학과 불교미술과 등 4개학과 157명이 졸업한다. (02)511-2026

모집 합창단원=선덕사(주지 행법) 가릉빈가합창단은 오는 14일까지 약간명의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062)263-4660

자원봉사자=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물리치료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2)325-2161

후원자=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흥)은 득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세대 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세대 밑반찬만들어주기사업 전개를 위해 후원자를 모집한다. 1구좌 1만원. (0551)31-8017

강좌 수족침=(사)청여원은 오는 12일부터(매주 수요일 오후2시 2개월 과정) 수족침 강좌와 신부교실(매주 월, 수, 금 오후7시) 강좌를 개설한다. 수족침은 2개월에 5만원, 신부교실은 8회에 7만원. (02)796-6644

대여 어린이 한문교실=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지난 1월19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10시부터 어린이 한문교실을 개설, 운영한다. (053)474-8228

예식장무료이용=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수용인원 2백명 규모의 예식실을 무료로 대여한다.

'97년을 뛴다

불교환경운동가 문 태 영 교수

"사람·생물 함께 사는 공간 연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개발논리에 밀려 사찰환경이 급속히 망들고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환경을 생각해온 문태영교수(고신대 생물학, 39세)는 그래서 올해 더욱 바쁘다. 연구작업뿐만 아니라 실천활동을 펼 일들로 꽉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하루 일의 30%는 불교적인 과제에 쏟고 있습니다. 사찰환경을 연구하는 일이 곧 스님들의 수행환경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교수는 1월부터 맑고향기롭게모임이 벌이는 불교계 첫 '사찰생태기행'을 인솔했다. 앞으로 격월로 이 팀과 전국 사찰을 누빌 계획이다. 또 봄에는 방생 등 보존생물에 대한 생태계 연구, 여름에는 현장답사, 가을에는 곤충이나 식물등 초본(草本)생물을, 겨울에는 문화곤충학으로 민속 한방 음악 등 문화분야와의 활용도를 연구한다.

문교수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과 생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만드는 방법'이다. 생명존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불교사상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 생태연구의 기본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스님들의 생태연구에 대한 인식전환이 급선무입니다. 사찰에 사는 곤충등 생물연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위영란 기자

"종교는 달라도 자비심 하나"

천주교시설 희망원에 성금전달 삼 중 스님



1천5백여명의 정신질환자 척수장애아 고아등을 수용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대구대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보시가 이뤄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사진〉

삼중스님(자비사 주지)과 양동수법사 등은 지난 1월 29일 희망원을 방문, 스님이 1년동안 모은 5백원짜리 동전(20여만원)과 기독교 신자인 장경도씨가 고아들을 위해 써달라며 스님에게 맡긴 금반지 등을 전달했다. 또한 사형수로 있다가 사면된 양동수법사는 첫 강연료를 전액 기탁했고, 운문사사리암의 공양주보살은 푼푼이 모은 쌈지돈을 기증해 주위의 감동을 자아냈다.

대구=이윤호 기자

1997학년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1969년에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불교교역자의 의전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1) 1학년 상주권공과 신입생 50명
   (2) 2학년 각배과 편입생 ○명
   (3) 3학년 영산과 편입생 ○명
   (4) 연구과정 범음과(짓소리) ○명
   (5) 초급 상주권공 단기과정 3개월 50명(도량석,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나바춤, 등 우선수업)
2. 교 수 진 : 박송암큰스님 직강. 구해, 일운, 기봉, 송강, 원허, 동희, 법현, 능화, 인각.
3. 응시자격 :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제출서류 : (1)입학원서 (2)주민등록등본 1부
   (3)승적증명서1부
   (4)반명함판 사진 5매. 증명사진 3매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1월28일 ~2월25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범음대학 교학처(02)392-3007~8
7. 합격자 발표 : 1997년 2월 28일 발표. 개별통지
8. 특 전
   (1)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다.
   (2)범음연구생으로 우선 채용함

1997년1월 24일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 음 대 학
120-150 서울특별시 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內
전화 392-3007~8 FAX 393-9450

1997학년도 제6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교육 · 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체계적인 불교공부로
믿음을 성취하고
인격적 신행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무량광대한 법사의 길을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열어 갑시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 거쳐)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1월 5일 ~ 2월 28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韓國佛教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활활 활활 화살 힘의 균형 이룰때 中道

산문밖의 禪

궁시장(弓矢匠) 유영기 씨

3대째 가업…40년 외길
고려 화살 원형복원 '작업화두'
작년 중요무형문화재 47호 지정



"탐심으로 활시위 당기면 매번 과녁 빗나가요"
활량 체격따라 시누대 선택…130번 공정거쳐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삶 하나하나가 어디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있던가.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다시 잠들기까지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는 전부 무엇인가 목표가 있어서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크고작은 수많은 목표를 향해 갈리게 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한 점을 향해 나아간다. 처음부터 과녁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 만들어지는 화살은 어찌보면 인간 삶의 한 상징처럼 느껴진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화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꼬박 1년3개월이 걸린다. 또 130번이라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활을 쏘는 것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량(활 쏘는 사람)이 과녁을 향해 시위를 마음껏 당겨놓을 때는 마음까지 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정치가들 사이에서 회자된 적이 있죠. 정말 마음을 비워야 될 사람은 사정(射亭·활터)에 들어선 활량입니다. 과녁의 한가운데를 응시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한 점을 향해 그것을 응시하는 것이죠. 사정에 올라선 사람들 대부분이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이유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섭니다. 그래서 화살이 과녁에서 빗나가면 마음이 아직도 과녁을 탐(貪)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책하게 되죠. 화살만드는 일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40여년간 화살만을 만들어온 궁시장(弓矢匠) 영집(楹集) 유영기씨(61세)는 굳이 장인(匠人)보다는 시인(矢人·화살을 만드는 사람)으로 불러주기를 원했다. 단순히 물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부심에서다.

그는 화살을 만들던 조부와 부친의 가르침과 문헌으로만 전해 내려온 조선시대의 편전(片箭·매우 작은 화살), 효시(嚆矢·소리나는 화살), 박두(樸頭·촉을 나무로 만든 화살) 등을 복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오랫동안 공석이던 중요무형문화재 47호 궁시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유영기씨의 '화살업'은 조부(유창원) 때부터 3대째 내려온 가업이다. 6·25가 터지자 그의 선친(유복자)은 여느 사람처럼 땅문서나 집문서를 갖고나온 대신 부레풀(화살을 붙이는 풀)만을 소중하게 안고 피난을 갔다. 그때 그는 화살업에 대한 선친의 긍지와 애착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가 화살업에 뛰어들자 활터와 활량이 사라지고 편사·담파방·살찌(활시합의 일종) 등과 같은 사정놀이가 장안에서 자취를 감추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부레풀을 소중히 하던 부친의 모습이 생각나 화살공방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한다.

"화살이 곧게 나아가 과녁을 맞추기 위해서는 활량, 활, 화살이 서로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활량의 힘, 활의 강도, 화살이 서로 어우러지지 않아 균형을 잃게되면 활이 끊어지거나 화살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활 화살 그리고 힘을 적절히 구사해야 하는 활량 등 어느 하나가 균형을 잃으면 목표는 빗나가고 말죠. 인생살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든가 정성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일을 그르치게 마련이죠. 균형을 이룬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균형잡힌 삶이야말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中道)의 세계가 아닐까. 그는 화살을 만들때는 물론이지만 무슨 일을 할 때면 부처님이 한 제자에게 자상하게 가르치신 거문고의 비유를 기억하곤 한다. "거문고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강한 소리가 나면서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늘어지므로 적당하게 잘 조여진 거문고줄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얻듯 잘 조여진 거문고줄처럼 수행을 하라 하셨지요. 우리의 삶도 주체자인 우리가 거문고줄을 고르듯, 화살을 활에 끼워 힘을 잘 조절해 과녁을 맞추듯 그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벼운 화살을 강궁(强弓)이나 체력이 우수한 활량이 쏠 경우에는 활의 강한 탄력에 화살의 뒷부분이 몹시 흔들리며 잘 나가지 않고 과녁에도 못 미친다는 것.

"화살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할때 직접 오라고 합니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좋은 시인(矢人)은 먼저 활량의 신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죠. 활량의 체격을 살펴 그사람에 어울리는 화살을 만들어주기 위해 적당한 시누대(대나무 일종)를 선택하는 것으로 화살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시누대의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시누대는 12월과 1월 사이 서리를 맞고 해풍에 그슬린 것을 선택한다. 이때의 것이어야만 시누대의 겉이 매우 강하고 속이 물러 화살이 과녁에 꽂히거나 땅에 떨어져도 쉽게 파손되지 않고 또한 변형이 적다는 것. 130번이나 걸리는 공정을 일일히 손으로 섬세하게 해야한다. 이러니 화살 하나에 쏟는 것은 능란한 기술뿐만은 아니다. 그만큼의 정성을 쏟아야 하기에 화살을 건넬땐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심(矢心)까지 건네는 것이고 이러한 그의 정성은 그동안 전승공예전 등 각종 민속공예품 대회에서 입상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고구려벽화에 말을 타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 호쾌한 무사가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그 고구려화살을 복원하고 싶지만 문헌상에 남아있는 자료가 없으니…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찾아 고려시대 화살들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원(願)입니다만…." 말꼬리를 흐리며 이내 조막손이를 쥐어잡고 시누대 곧음질을 시작한다. 그는 곧 주위의 모든 것을 잊은 듯 화살만드는 삼매에 빠져들었다.

오종욱 기자

서양이 왜 불교에 관심갖는지

문 요즘에 와서 서양사람들이 불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듣고 있습니다. 서양은 과학문명이 앞서 가는데 그들이 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불교가 현대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종교라는 말까지 하는지요?

〈구장서·대구 수성구 범어동〉

답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그대로 진리입니다. 이 우주의 근본도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면서 삼라만상이 살아가는 이치를 일러 놓은 것이니까 여늬 종교와는 달리 진리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종교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종교라거나 또는 어느 시대에 알맞는다거나 하는 말은 불교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니까요.

서양사람들이 이제와서 불교에 부쩍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불교가 색다르다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개중에 눈밝은 사람들이 있어서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인줄 알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분명히 과학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학이라는 게 물질 위주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고 따라서 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고작해야 반쪽밖에 안됩니다. 가령 의학이 발달되어서 병 치료에 큰 진보가 있다하더라도 정신계를 무시하고는 많아야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50%는 어떻게 합니까?

일전에 외국에 가서 법회를 할때 어느 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지요.

'당신네들의 과학이 크게 발달이 되어서 잘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불교 아닌 건 없다. 불교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도리이기 때문에 불교가 어디에 국한된 것인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풀 한포기도 불교 아닌게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듣고서는 대꾸하기를 '우리들은 보이는 세계하고만 씨름을 했지 안보이는 세계를 외면해 왔는데 그래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찾는마음과 한마음은 다른지요

문 스님께서 한마음을 알기위해서, 한마음이 되기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중에 '야 이 친구야 네가 있다면 증명해 보아라' 하신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마음하고 한마음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정철부·서울 강남구 논현동〉

답 우선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면서 참 나를 발견해야 하겠는데 답답하거든 '이 친구야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너 뿐이니까 증명해 보아라' 하라고 했는데 이게 관(觀)입니다. 직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지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몸뚱이로 길을 걷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데 그걸 알게하는 것도 주인공이지 알음알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너다' 하고 밀어넣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는 주체와 대상이 따로 있다면 내가 무엇을 본다하는 식으로 둘이 되어버리지요. 그러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자와 지켜보는 대상이 다르지 않으니 관할 수 밖에요. 생각을 넘어선 자리, 영원한 근본생명의 자리, 그걸 자성본래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만 움직이게 하는 것도 그 자리고 알게하는 것도 그 자리니까 부르는 마음 따로 한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이 친구야' 한 것은 이름이니까 주인공이라해도 되고 참나라 해도 되고 자성본래불이라해도 되고 내 마음의 부처라고 해도 됩니다. 부처아닌건 없으니까요. 부처도 이름이지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고통받는 사람보면 안타까워요

문 평소의 수행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마음 편안히 지냅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매사에 끄달리면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견디기 어려운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는지요.

〈박현숙·대전 유성구 덕진동〉

답 둘이 아닌 도리를 모르면 건져줄 수가 없겠지요. 세상을 좀 넓게보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천당도 지옥도 이 자리이구요. 그런데 우리가 한마음으로 둘이 아닌 도리를 안다면 다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나와 네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대로 나인데, 제3자도 나인데 어째서 내가 나를 건지지 못하겠습니까?

가령 나는 부처님 공부를 배워서 편안한데 너는 왜 그걸 모르고 괴롭게 사느냐 하신다면 벌써 돌로 본 것이니 아무리 안타깝다한들 내가 나를 건지듯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본래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으로 통신이 되게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나부터 없어야 하겠지요. 나라는 생각이 있는한 어떻게 하나가 되고 응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도리를 배우려면 첫째도 내가 죽어야 하고 둘째도 내가 죽어야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게됩니다.

소를 건지려면 내가 소가 되어야하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 한증요법

문화 불 한증막

"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
96.11. 5 신장개업
쑥찜, 맥반석 찜질방 겸비

"

피부미용
류마티스 관절염
산후조리
에 좋은 한증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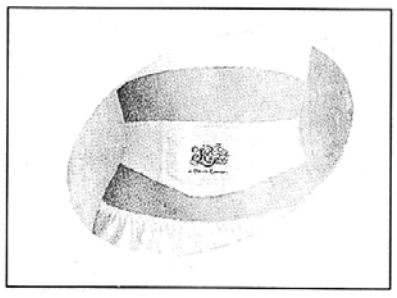
····· 문화 불 한증막 ·····

위치 : 부산시 대연4동 UN묘지 정문 앞
전화 : 051)627-6605
버스 : 25,68,78,34,134 UN묘지 정문앞 하차

이 표 소지자에 입실료 30% 할인. 1/9 ~ 3/31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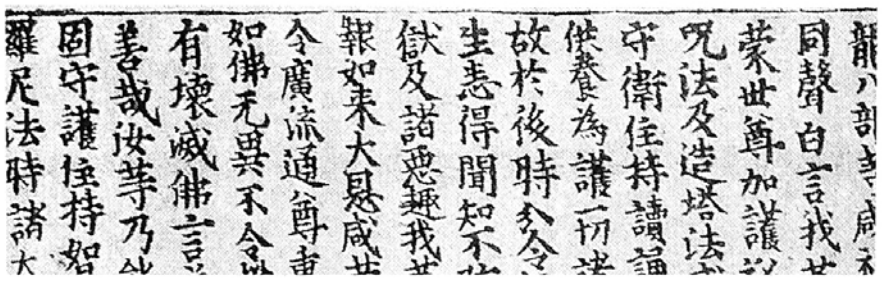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다라니경' 한국제작 확실



◇ 최 근 韓·中간 제작국 논란에 휩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천혜봉박사등 전문가 中작품설 일축
'묵서지편' 복원·지질분석 확인 가능

최근 중국 학계가 자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인 통일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국보 제126호·이하 다라니경)에 대해 국내 학자들은 한결같이 '제작국은 한국'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한국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될만한 구체적인 확인 방법도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4년 김성수교수(청주대 문헌정보학)가 '서지학연구' 제10집에 발표한 논문 '한국 목판인쇄의 기원연대에 관한 연구'를 구해 본 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 판지싱연구원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목판 인쇄술 '원조싸움' <본지 111호 15면 참조>은 급기야 〈다라니경〉의 제작국이 어디인가까지 비화됐다. 판지싱연구원을 비롯해 중국 학계가 〈다라니경〉에 당나라 때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제작한 무주제자(武周制字)가 들어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인쇄돼 신라로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88년 〈다라니경〉 복원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원로 서지학자 천혜봉박사(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당시 지질조사 결과 〈다라니경〉의 지질은 닥종이로, 706년 경주 황복사 석탑에 봉안될 당시 중국이 사용하던 종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중국 제작설을 일축했다.

지난 59년 고려 금속활자 발명이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2세기나 앞섰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했던 손보기교수(연세대)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교수는 먼저 〈다라니경〉의 제작연대와 제작과정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꼽히는 '묵서지편(墨書紙片)'의 복원을 들었다. 지난 66년 석가탑 해체복원 과정에서 〈다라니경〉과 함께 발견된 이 문서는 10여장의 종이가 서로 맞붙어 있어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 그러나 '이와같이 안치한다(安置如是)'는 글귀가 확인된 바 있어, 관련전문가를 동원하면 내용일부를 판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한국 닥종이는 중국의 종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나, 같은 닥종이라도 한국산은 중국산이나 일본산에 비해 섬유질이 훨씬 길어 성분 분석을 하면 제작국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작연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중국 자료의 표본을 이 〈다라니경〉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면 어느 나라 종이인지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교수는 〈다라니경〉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정확한 제작연대와 제작과정, 제작국가 등을 밝힐 수 있음에도, 문화재 보존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교수는 "다라니경의 납탑공양은 최소 77부에서 많게는 1백부 이상이며, 706년 황복사 석탑에 봉안됐다는 다라니경을 비롯해 8세기중엽까지 불국사 석가탑 등에 이들 다라니경 목판인쇄본이 봉안됐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704년 중국에서 번역된 필사본을 그대로 석가탑에 봉안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단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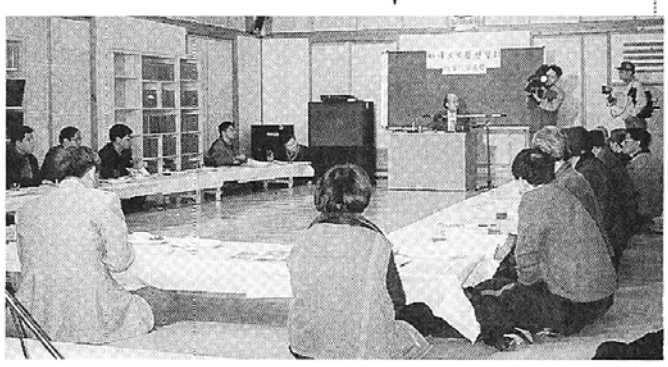
임창순 문화재위원장도 "무주제자는 당시 불경이 중국으로부터 한역돼 들어왔고, 그 당시 씌여진 불경에 이와 같은 표기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것만으로 중국이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새로운 삶의 원칙 제시하자"

◇ '하나로 포럼 선정회'는 매월 한차례씩 포럼을 여는 등 본격적인 '불교의 사회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하나로 포럼 선정회' 창립 기념포럼



선정문화 분단·도덕상실등 치유 열쇠
禪 바탕 실천 강조 '씽크탱크' 선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불교계 씽크탱크(think tank)로서 '선정문화(禪定文化)'를 통해 불교의 대 사회회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하나로 포럼 선정회(禪定會)'가 창립돼 관심을 끌었다. <본지 112호 15면 참조>

불교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지성인 불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은해사에서 열린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에서는 '선정문화'와 불교의 사회화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총회에서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된 고준환교수(경기대 법학)는 '지금 여기, 자신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한국의 선정(禪定)문화는 세계최고의 문화이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삶의 원칙을 제시할 때라고 주장했다.

고교수가 설명한 선정문화는 '간화선 중심이고, 평상심이 도(道)라는 전제하에 선(禪)을 통해 무아경(無我境)에 나아가는 진리로 상주진심(常住眞心)이 진여(眞如)'라는 것. 이같은 선정문화는 분단의 고통과 경제불황, 부정부패, 인간성 상실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노미(Anomie)현상과 동서·남북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곽동효부장판사(대구고법)는 '우리나라에 대중적 의미에서의 선정문화라는 것이 있느냐'며 의문을 던졌고, 김병규논설위원(문화일보), 전창렬변호사, 노부호교수(서강대 경영) 등은 선정문화의 정의부터 확실히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교수는 "우리의 선정문화가 세계최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교수는 "선정에 든 이들이 만들어 낸 문화가 선정문화"라고 소개한 뒤 "선정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교 혹은 친불교적 방법을 통해 선정문화를 창조하고 사회에 기여하자는 것이 이 포럼의 근본취지"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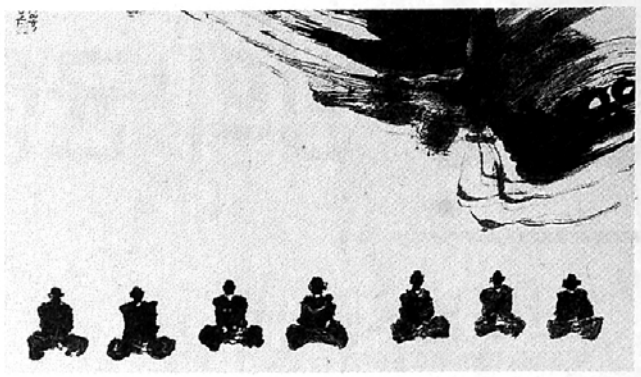
공동대표에 선출된 법타스님(은해사 주지)도 "우리불교는 전문가 부족과 횡적 의사소통의 미비로 사회현상에 대해 뒤쳐져 왔다"며 "포럼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씽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하나로 포럼 선정회는 사회 제분야에 대해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전문적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설치, 불교·정치·경제·사회·문화·국학 등 분야별 연구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선정문화란 무엇인가'(2월) '민족통일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3월) '평화적 정권교체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4월) 등 사회와 국가, 인류사회를 주제로 매월 한차례 포럼을 운영하며, 봉사활동 등을 통한 불교의 사회화 및 보살도 실천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포럼을 마친 참석자들은 26일 은해사 홍제암, 거조암, 군위 인각사, 갓바위를 답사하고 불교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관리실태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

영천 은해사=이윤호 기자



◇김양수作

法數로 배우는 불교 ④

일불승 (上)

모두 함께 타고가는 法수레
소승·대승 구별 무의미… 똑같은 불제자
남방·북방불교 실천방법 다를뿐 한뿌리

얼마전 미얀마에 계신 손꼽히는 고승 한분을 초청하여 법회를 연 적이 있다. 그때 필자는 그동안 우리 한국과 같은 북방불교권에서 써오던 버릇대로 남방불교권에 대해서 소승불교라는 표현을 무심코 했었는데 그 말이 그만 그분의 귀를 거슬리게 했던 모양이다. 스님은 "이천오백년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계율과 가르침을 그대로 전승하여 실천하고 있는 우리 남방불교를 왜 소승불교라 칭하는가. 소승이라는 말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등지에서 존중되고 있는 대승경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우리 지역의 불교는 그냥 '남방불교' 혹은 '상좌부'불교라고 칭하는 것이 옳다"고 힐책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사과를 하면서 대승불교권에서 바라보는 상좌부불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했다.

스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곳 대승불교쪽에서 주장하는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를 숭봉하는 분들은 우리 남방불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소승도라고 무시해 버리는 시각도 그동안 있어왔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이젠 서로가 서로를 자세히 알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함께 채워가야 한다"고 하면서 필자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셨다. 그 말씀가운데는 우리가 남방불교권에 대해서 대승적 교설에 입각해서만 피상적으로 알고있던 문제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함께 양자간의 수많은 교류가 앞으로 있어야만 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하였다.

사실 소승이란 혼자 타고 가는 작은 수레(Hina-yana)라는 뜻으로 모두와 함께 타고 가는 큰 수레(Maha-yana)라는 뜻을 지닌 대승에서 붙여준 이름이다. 이 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후 150여년경 부파불교때 갈라진 것으로 남방불교가 전통적 계율과 교법을 전승한 출가중심의 보수적 성향을 띤 상좌부의 맥이라면 대승불교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계율과 교법을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에 입각하여 재해석한 재가중심의 진보적 성향을 띤 대중부의 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 둘은 자연히 똑같은 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부처님과 교법을 해석했고, 실천방향도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럼 남방불교와 대승불교의 주장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남방불교는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으로는 직접 설하지 않은 비불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으로 설한 것 말고 마음으로 설한 것을 들은 것이 대승경전이므로 남방불교경전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 남방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생기고 없어지는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공(空)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살아계셨을 때만 깨달음의 경지가 있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중생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깨달음 자체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고 주장한다.

마음에 대해서도 남방불교에서는 마음은 무상하고 허망한 것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승불교에서는 무상하고 허망한 마음말고 그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인 불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수행 경지에 대해서도 남방불교는 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성문과 연각이 얻는 아라한과인데 비해 대승불교는 중생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불과를 주장한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3년과정)

97학년도 동산불교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불교전문 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보살도를 중생속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저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2. 교과목 및 교수

경전과정 (매주월요일)	1학년		2학년		3학년		· 무진장 스님(연구원원장) · 백종 교수(동국인성계발연구원장)
	1학기	화엄경입법계품	1학기	금강경	1학기	화엄경 Ⅰ	· 중법 스님(송계대 교수) · 종석 스님(송계대교수) · 오형근 교수(동국대 교수)
	2학기	아함경 Ⅰ	2학기	중 론	2학기	불교미술	· 권기종 교수(동국대 교수) · 정호광 스님(동국대 교수) · 장휘옥 교수(진동국대 교수)
응용과정 (매주화요일)	1학기	비교종교·밀교	1학기	법화경 Ⅰ	1학기	화엄경 Ⅱ	· 권탄준 교수(동국대 교수) · 정병조 교수(동국대 교수) · 장태석 교수(동국대 교수)
	2학기	아함경 Ⅱ	2학기	법화경 Ⅱ	2학기	포교방법론	· 정정심 박사(성락원원장) · 서윤길 교수(동국대 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개 강 일 시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30명) 동산반(30명)	①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포교사 취득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반명함판사진 3장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재가소개서 1통	97년 2월 1일 ~ 3월 1일(토) (서류전형)	97년 3월 3일	매주 월·화요일 오후7시~9시 (본연구원 법당)	동산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자만 지원가능

4. 개강일시 1997년 3월3일(월), 4일(화) 오후 7시

5. 입학금 일십만원

6. 졸업자격 경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 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전문법사)을 수여함.

7.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문의전화 (02)732-1206~8, 722-0408/Fax:732-1207)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1997년도 도시생활 포교사를 위한(1년 과정)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한 불교의식의 숙달로 생활 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3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7년 3월 8일 (토) 3시

지도법사 : 권지흥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상반기)	한글불교의식 Ⅱ(하반기)
●아침·저녁으로 해오하는 예경의식 ●시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 …… 장엄염불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 …… 일반의식 ●장례의식(2) …… 입종·매장·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3. 모집방법 및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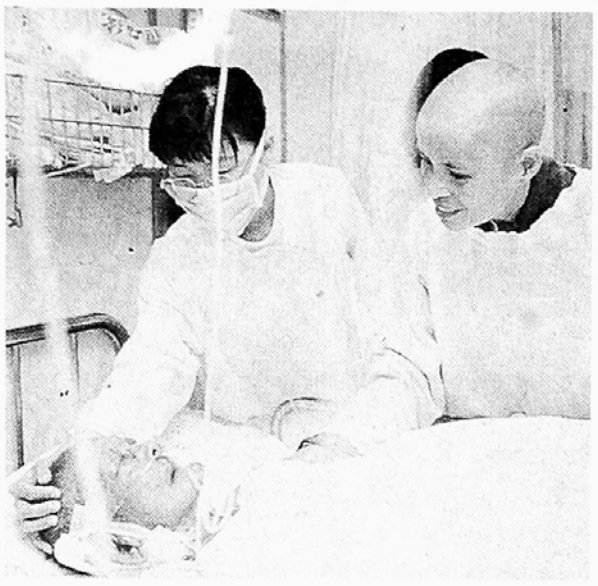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장	97년 2월 1일(토) ~ 3월 7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3:00~4:30(동산법당) (본연구원 법당)

5. 입학금 ●일십만원

6. 원서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732-1206~8/FAX : 732-1207)

7.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증엄스님이 무의탁노인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왼쪽사진). 1986년 8월 개원된 자제병원 전경. 총면적이 1만7천8백여평에 달하는 자제병원에는 7백50여개의 병상이 마련됐다.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6〉

대만 증엄스님

"병든사람에겐 천수관음보살"

'5전절약운동' 전개 66년 자제공덕회 설립
종합병원 설립 무료진료·위탁금제 폐지
96년 정신질환자·장애자 재활병원도 개원
구휼기금 조성 국제재난 구제사업 전개
대학 3곳 설립…의학·불교학등 발전 기여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이루자'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설립된 대만의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 대표 증엄스님)는 성공적인 활동을 통해 세계 불교계로부터 불교사회복지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37년에 대만에서 출생한 증엄비구니스님은 23세에 이르러 부모와 사별(死別)하고 출가했다. 스님이 사회복지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만의 고산지역인 후안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당시 스님에게 자주 법문을 청해 듣던 신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병문안를 갔다. 그런데 스님은 이곳에서 응급환자가 수술중에 필요한 수혈혈액이 부족해 할수없이 업혀 돌아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 광경을 처연하게 바라보는 스님에게 한 원주민 여인네가 "고산지역인 이곳까지 혈액과 의약품을 운반하는데 꼬박 10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병원은 언제나 혈액과 의약품이 부족합니다"라고 설명해줬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위하 일정한 '위탁금'을 환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 응급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증엄스님은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빈곤해 지면 부처님 진리는 마음 한 귀퉁이조차 자리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 고통받는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천개의 손길을 뻗쳤듯이 1966년 30여명의 여성신자들과 함께 '자제(慈濟)재단'을 설립했다.

자제재단은 매일 5전씩 절약하는 것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부자를 교육을 통해 교화시키는데 주력했다. '5전 절약운동'은 당시 후안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었고 재단기금을 조성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같은해 자제재단은 자제공덕회로 전환됐다.

증엄스님은 자제공덕회 활동을 "자선·의료·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서로 결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부상조하며 널리 중생의 고난에 찬 소리를 들으면 즉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제공덕회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매일같이 방문해 봉사하는 등 빈민구호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껏 자제공덕회가 전개한 구호활동에 혜택을 입은 사람만도 대만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68만여명에 이른다.

"인간의 여러 괴로움중에 병고가 가장 고통스럽다. 무엇보다도 가난에서 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지금껏 자제공덕회 활동을 통해 충분히 알게된 증엄스님은 1979년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대만의 동부지역에 자제병원 설립을 서원해 1986년 드디어 개원했다.

자제병원은 무료진료뿐만 아니라 환자가 수술받기 전에 일정한 금액을 위탁하는 '위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환자에게 의료혜택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까지 배려해 병들고 가난한 환자들까지 편안히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성장했다.

개원 초기 1개 병동에 1백개 의료침대를 갖추고 출발한 자제병원은 현재 25개 병동에 7백50여개 의료침대를 갖추고 매일 1천5백여명의 환자에게 의술을 베푸는 거대 종합병원으로 발전했다.

대만 사회는 "자제병원이 전근대적이었던 대만의 병원체제를 개선하고 권위적이기만 했던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자제병원의 성과를 평가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 자제공덕회의 활동은 자제병원에서 멈추질 않았다. 지난 1996년 대만 남부지역에 새롭게 설립한 '재활병원'은 총 1천여개의 의료침대를 갖추고 정신질환자와 신체장애자들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증엄스님은 이밖에도 "보살의 지혜로 청소년을 교육하고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를 가르치겠다"며 자제간호전문대학(1989년) 자제의과대학(1992년) 자제종합대학교(1994년) 등을 연이어 설립했다. 이곳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의학·간호·불교학·예술 등의 장학금을 조성해 매학기 학자금을 지급해 주는 등 교육사업에도 앞장섰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혜택받은 장학금은 총 4억2천498만원에 이른다.

자제공덕회 활동은 대만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 91년 중국의 화동지역에서 2억2천만여명이 대홍수의 재난을 만났을 때 '중점(重點)'과 '직접(直接)'이라는 원칙하에 수재민 구제에 적극 나섰다. 이후 자제공덕회는 '국제구휼기금'을 조성해 해외 재난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92년 구소련연방의 지원을 받지 않고 겨울을 보내야 했던 몽골에게 음식·연료·의료 등을 지원했고 1993년 이디오피아에서 전쟁과 가뭄을 당한 난민들을 지원했다.

또한 르완다 의료품지원, 홍수로 집을 잃은 네팔인들에게 1천8백세대의 집을 신축해 주었고 1994년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캄보디아도 지원했다.

이밖에도 대만에서 공해를 추방하기 위해 '쓰레기 재활 운동'과 자연보호캠페인까지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자제공덕회가 지금껏 재활한 쓰레기를 일렬로 나열하면 장장 18만 킬로미터에 이르며 총 3백66만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계가를 올렸다.

지난 31년간 대만뿐 아니라 세계각국에서 자제공덕회를 통해 각종 사회복지활동을 펼쳐온 증엄스님은 "자신을 위하여 안락을 찾지 말고 오직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함을 얻도록 할 것"이라며 매일같이 제자들을 북돋우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오로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 온 몸을 바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나의 수행일기

황청원 〈시인〉



"마음 낮추는 법 내것으로 만들자"

환속후 농가에서의 참회 1년 '나를 지켜준 시간'

마음 한켠에 기억 하나 일어선다. 먼 길에 깔려있는 새벽안개처럼 아득함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렇게 깊이 각인되어 나의 생 전체를 뒤흔들던 순간들이 이젠 답답함으로 돌아 앉아서인지도 모른다.

아, 벌써 십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내가 택했던 수행자생활의 열일곱해가 채워지는 그 무렵, 캄캄한 바람이 내면 곳곳을 핥아댔었다. 그것은 어쩌면 내 삶에 대한, 아니 수행자로 지냈던 시간에 대한 의문부호같은 것이었다.

그 의문부호에 대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 나는 결정을 서둘렀다. 인연 맺고 살던 곳이며, 얼굴 마주하던 이들과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세계속으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 놓으려는 준비의 시작이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엄청난 변화가 나의 중심에서 일어났다.

홀연한 떠남이었다. 누구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알지 못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자락에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을 지난 길 끝이 닿은 곳엔 바로 내가 찾던 농가가 보였다. 언젠가 나그네로 살던때 기차에서 만남을 이뤄 하룻밤 지냈던 집이 있다. 그 인연으로 내가 농가의 새 주인이 되었다.



한 해쯤 빈 채였던 농가의 마당에는 잡풀들이 무성했다. 집 안과 밖은 내 손길을 참으로 부지런하게 만들었다. 살만큼 될 때까지는 거의 한달이란 시간이 지난 뒤였다. 어느새 삭발했던 머리칼은 풋밤송이처럼 자랐고, 차림새는 자유로워져 있었다. 그러나 오랜동안 몸에 배인 수행자생활에서는 쉽게 풀려날 수가 없었다. 실은 그것에서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지극했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느끼고 말았다. 얽매임에도, 풀려남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마음 내키면 마루 끝에 앉아 가부좌를 하기도 하고, 골방에 모신 조그마한 돌부처님께 절을 올리기도 하고, 밭이랑에 잡풀들을 뽑으며 경전 말씀을 외우기도 했다.

가부좌를 하고 앉았을때는 내 안으로 산이 스며오고 또 나무들이 빼곡히 차올랐다. 부처님께 절을 올릴때는 무릎에 멍이 비치고 또 긴 향내에 목젖이 무감각해졌다. 경전 말씀 담으면 신심은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러다가 이내 적요함이 찾아왔다. 심지어 낮잠을 자고, 산에 오르고, 마을 아이들과 놀아도 그 적요함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적요함, 그것은 내 마음의 고요였다. 선사가 얻은 큰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풋풋한 깨달음으로 가는 걸음마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 고요를 맛볼 수 있다는 것 만으로 마음은 차츰 그 곳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럴수록 좀더 반듯하지 못했던 수행자로서의 생활들이 책장처럼 자꾸 넘겨지고 넘겨지는 것이 아닌가. 문득 참회라는 말이 떠올랐다. 고요를 누리는 희희로움도 중요하지만 티끌같은 오류라도 다 털어내는 참회의 시간이 오히려 내겐 큰 소중함인 것 같았다. 내 길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마음 낮추는 법부터 내것으로 만들어 나가려했다. 그러나 어찌 그 연이 가볍게 이루어질 수 있으랴. 하물며 미물들에게까지 자신을 낮추겠다고 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만들어 가기란 목마름에 시달리며 시원한 샘물 앞을 그냥 지나쳐 가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계절이 몇 번 지나서야 내 마음은 낮은 곳 근처를 배회하는 듯 했었다. 물론 그 마음을 여여하게 매어 둔다는 일엔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귀한 느낌이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견고한 수행법이 될 거라는 예감은 할 수 있었다. 이제 생각해 보면 한해가 다 채워지지 않은 농가에서의 시간들, 정말 그것은 지금도 내 보잘 것 없는 수행법의 뼈를 이루며 나를 지탱해 준다. 비록 그 누구에게도 건네지 못할 부끄러운 수행법이지만 나 스스로를 늘 깨우쳐 주는 목숨같은 것으로 믿고 싶다.

황토와 약쑥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탕기와 황토좌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파괴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가정용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치질 배군살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감퇴 빈뇨, 진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1日 20분~30분 좌욕을 하십시요〉

〈2〉 미용효능



●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기 뽀얗게 됨
● 피부노화방지 회복, 재생
● 피부탄력유지 윤택뛰어난 피부 맛시지 효과
● 기미 여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폐질환, 우두염등

〈1日1회 10분~15분 얼굴피부팩질을 하십시오〉



〈황토로 만든 도자기 좌대〉
· 실용신안등록원 : 제96-23062호
· 의장등록출원 : 제96-16368호

● 규격 : 높이 27cm × 직경 33cm
● 전기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정시간 사용해도 전자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 강화약쑥 100일분 + 황토가루 100일분 포함
●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침대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보급가 :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 대 (별도선택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좌욕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동의보감 탕액편권3」「본초강목」「향약집성방」「신해경」 등의 옛의서에 황토와 약쑥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씌여있는 기록과 단군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쑥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쑥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황토가루와 약쑥을 염분(소금)과 함께 펄펄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쐬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치료방법 : 아픈곳을 좌대위 구멍에 대고 찜질〉


①〈허리요통, 척추질환, 디스크〉


②〈어깨, 목, 디스크, 통증, 근육뭉침, 결림데, 담등의 질환〉


③〈팔신경통, 마비, 시력증상, 힘줄 늘어남, 근육통, 타박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신경통〉


⑤〈복부냉증, 간기능질환〉


⑥〈손, 발바닥 무좀, 습진, 피부각질,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훙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본회 : (지화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남 : 553-0261~2 강북 : 902-2430 성북 : 942-6430 반포 : 597-7581
승 파 : 417-8922 종 로 : 747-7033 영등포 : 782-6080 구로·금천 : 864-0199
경기지역 : 평택 : (0333)856-6856 분당 : (0347)66-0049 용인 : (0335)36-4294 과천 : (02)503-9352
부산(051) : 부산진구 : 803-0108 연제구 : 864-2900 해운대구 : 702-2621
대구(053) 남구 : 474-2828 달서구 : 635-9734
대전(042) 중구 : 222-4936 서 구 : 534-4211 동구 : 253-6446 둔 산 : 487-7245
경남지역 마산 : (0551)23-9016 김해 : (0525)24-4871 진주 : (0591)43-4655
울산 : (0522)74-7536 울산중구 : (0522)93-1973 울주구 : (0522)85-1284
경북지역 포항 : (0562)82-3155~6 안동 : (0571)53-0229
광주(062) 동구 : 228-8544 서구 : 523-1540
강원도 강릉 : (0391)645-2117
충남지역 공주 : (0416)856-6856 예산 : (0458)33-3208 서산 : (0455)63-0457 아산 : (0418)43-3510
충북지역 청 주 : (0431)273-2684 제 천 : (0443)46-3023
제주도(064) 제주시 : 22-3324

다시 푼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㉚

所謂修者 古人謂爲不祥之物 不得已而
소위수자 고인위위불상지물 부득이이
用焉
용언
此次打七 已經三箇半七 還有三箇半七
차차타칠 이경삼개반칠 환유삼개반칠
下三箇半七 身心較爲純熟 用功當此前
하삼개반칠 신심교위순숙 용공당차전
容易
용이
諸位不可錯過因緣 務要在下三箇半
제위불가착과인연 무요재하 삼개반
七內
칠내
弄箇水落石出 發明心地
롱개수락석출 발명심지
才不孤負這箇難得的機緣
재불고부저개난득적기연

이른바 닦음이란 옛 사람도 이르기를 '상서롭지 못한 일인지라 부득이하게 사용할 뿐'이라고 하였다.

이제부터 잘못된 칠견을 깨겠다. 이미 반쯤은 깼으나 아직도 반쯤 남아 있다.

이하의 반은 몸과 마음이 비교적 순숙되어 있으니 공부하기가 전보다 쉬울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인연을 그르쳐서는 안될 것이니 힘써야 할 것은 아래의 반이다.

"물이 말라 돌 드러나듯 마음 밝혀야 의정 일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물이 말라서 돌이 드러나듯이 실상이 드러나도록 마음을 밝혀야

이처럼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這二十多天來 諸位一天到晩起早睡遲
저이십다천래 제위일천도만기조수지
努力用功 結果出不了四種境界
노력용공 결과출불료사종경계
一者 路頭識有 猜不清的 話頭看不上
일자 로두환유고불청적 화두간불상
糊糊塗塗 隨衆打純
호호도도 수중타순
不是安樂粥飯 就是昏沈落擺
불시망상분비 취시혼침요파

지난 20여일동안 여러분은 매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서

공부에 노력했으니 그 결과는 다음 네가지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첫째는 공부길에 아직도 뚜렷이 들리지 않는게 있어서 화두가 잘 살펴지지 아니하여 흐리멍텅하게 대중을 따라 눈을 내리깔 뿐이라

망상이 흩날리지 않으면 혼침이 화두를 뒤흔드는 것이다.

二者 話頭看得上 有了點把握
이자 화두간득상 유료점파악
但是死死握着一片敲門瓦子
단시사사악착일편고문와자
念着 念佛是誰 這箇話頭 成了念話頭
염착 염불시수 저개화두 성료염화두
以爲如此可以起疑情 得開悟
이위여차가이기의정 득개오
殊不知這是在話尾上用心 乃是生滅法
수부지저시재화미상용심 내시생멸법
終不能到 一念無生之地
종불능도 일념무생지지

둘째는 화두가 잘 들려서 잡히는 듯 하는게 있으나

다만 죽을 힘으로 문 두드리는 기왓장 한 조각을 잡고 있을 뿐이라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를 염하고 있으나 그런 화두는 염화두를 이룸인데 그와같이 하면 의정이 일어나 깨달음에 이를 줄 안다.

이것은 화미에 마음을 쓰는 것이어서 곧 생멸의 법이니

끝내 일념무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暫用尙可 若執以爲究竟實法 何有悟道
잠용상가 약집이위구경실법 하유오도
之期
지기
晩近禪宗之所以 不出人了
만근선종지소이 불출인료
多緣誤于在話尾上用心
다연오우재화미상용심
三者 有的會看話頭 能照顧現前一念
삼자 유적회간화두 능조고현전일념
無生
무생
或知念佛是心 卽從此起處 竟直看到無
혹지염불시심 즉종차기처 맥직간도무
念心相
념심상

잠시동안은 괜찮지만 만약 이에 대한 집착으로 구경을 삼는다면 어찌 오도를 기약할 수 있으리오.

근자에 선종에서 사람이 나지 않는 까닭은 화미에 마음을 쓰는 탓이라 하겠다.

셋째, 어떤 이는 화두가 잘 들려서 능히 일념무생을 비추거나

혹은 염불하는 자가 곧 마음임을 알아서 곧 일념이 일어나는 곳을 따라 곧장 무념심상으로 나아간다.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자신의 복밭에 씨뿌려

운 경 스 님 〈봉선사 주지〉

어떤 절대자가 운명 결정하는 것도
극락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과법따라 자기가 지은만큼 받게 되니
참회하고 선업 쌓으십시오



내가 1905년生이니까 새해가 되면서 아흔 세살이 됐습니다. 출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으니 지난 날이 〈금강경〉에서 말한 '현상계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같고 이슬같고 또한 번개같으니…'의 구절 그대롭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좌선과 간경(看經)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년전에 새벽예불을 나가다 미끄러져 뼈를 다치는 바람에 운신이 힘들어 새벽예불을 직접 모시지는 못합니다만 하루에 7~8시간은 꼭 공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세기 가까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 기도나 공부는 절대 미루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대신 해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불자들중엔 '스님이 다 해주시겠지' 또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한가할 때 하면 되지 뭐'하고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하니까 마음만 앞서지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니 젊을 때 공부를 밀어붙여야 하는 겁니다.

옛날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보조 지눌스님이라고, 고려때 국사를 지낸 유명한 고승입니다. 그 스님에게 누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보조스님이 누님에게 항상 염불을 하라고 할때마다 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아우가 있는데 염불공부를 해서 무엇하겠나. 설사 내가 도를 닦지 않는다 해도 다른 사람까지 제도해 주는 아우가 있는데 누나인 나야 당연히 좋은 곳으로 제도해 주지 않을라구" 보조스님은 말로써는 누님을 제도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방편을 쓰기로 했습니다. 어느날 누님이 절에 찾아오는 것을 미리 알고 방에 일부러 진수성찬을 가득 차려 놓았습니다. 누님이 들어오자 스님은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혼자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누님은 먹으라는 말도 없이 혼자서 먹는 것을 보고 섭섭하고 노여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지네 왜 이러나" "무슨 말씀입니까, 누님?" "무슨 말이라니? 나는 그만 돌아가야겠네. 덧십리 걸어온 사람을 그냥 앉혀두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번 먹어보란 말도 없잖은가? 어찌 누이 대접을 이렇게 하는가. 섭섭하네. "누님, 제가 이렇게 배가 부르도록 먹었는데 누님이 왜 배가 아니 부르십니까?" "자네가 먹었는데 어찌 내 배가 부르다는 말인가?" "제가 도를 깨치면 누님도 제도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동생이 배부르면 누님도 당연히 배가 부를텐데요." "동생이 밥먹었는데 어찌 내 배가 부를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어도 누님이 배부르지 않듯이 제가 수행하면 제가 제도되는 것이지 누님과는 상관없습니다. 누님이 극락가길 원한다면 누님이 직접 염불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대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극락도 대리극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이 말을 듣고 깨우친 보조스님의 누님은 이후 지성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 1905년 충남 서산 生
- 1921년 봉선사서 태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 해인사 김용사 유점사 강원서 수학
- 대승사 수덕사 표훈사 유점사 등 선원서 정진
- 자재암 · 흥룡사 주지 역임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수행통해 몸과 마음 순화되면
이웃까지 저절로 편안해져
나라와 세계가 화평해집니다"

이 일화는 내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야 하는 주체자는 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극락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인과의 법칙대로 스스로 지은만큼 받게되는 것이니 발심참회해 전생에서 쌓인 업장은 녹이고 열심히 선업을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출가한 것은 16세때입니다. 15살때 사촌형님을 따라 장구경을 갔다가 길을 잃고 집을 찾아오는 길에 탁발하는 스님을 봤습니다. 스님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무척 신기했습니다. 스님이 절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에 따라나니다 봉선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봉선사 규모는 대단했어요. 조선 최고의 승려로 추앙받던 홍월초스님등 노스님이 7~8명, 중견스님들만도 한 40명 사는 큰 절이었지요. 행자생활을 하다가 태오(泰悟)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았습니다. 17세때부터 초심 발심 자경문을 배웠고 한집안이었던 화계사에서 2년동안 목탁치고 염불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때 스님들은 밥먹는 것도 걸을 걷는 것도 다 법도에 맞았어요. 지금의 승려생활이야 옛날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느슨해졌다고 봐요. 당시는 지계가 무척 엄격했지요. 큰스님들은 아랫 사람들이 잘못하면 고칠 때까지 반복하여 일러 주셨지요.

19세가 되던 때 동화노스님 칠순을 맞아 당시 쟁쟁한 명성을 얻고있던 합천 해인사의 고담스님을 초청해 화엄경백일산림을 열었어요. 심부름을 하면서 법문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지요. 초발심은 이미 배웠지만 화엄경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경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지요. 그때 스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셔요.

나에게도 불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기도에는

『천수경』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
천수경연구
천수경은 한국불교에 소개된 수많은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인식되고 독송되는 경전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천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천수경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서이다.
〈현행『천수경』〉은 한국에서 형성된 독특한 신앙의례적 경전이다.
〈현행『천수경』〉은 한국불교신앙의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장경 어디를 보아도 현재 한국불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천수경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저자는 광범한 연구를 통해, 〈현행 천수경〉이 이전의 많은 의식집들의 집대성이며 그것들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과 한국불교 특유의 통불교적 성격, 즉 밀교와 화엄, 정토, 천태법화, 선 등의 요소를 종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각 지음/신국판 양장/324쪽 값 10,000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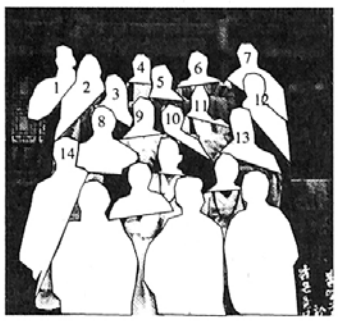
선의 생명력을 느낀다!
선의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는 오늘의 선을 생각케 하는 책!
禪 이야기
초심자에게는 선으로 가는 길을,
달마에서 성철까지!
생동감 넘치는 선의 일화, 선의 역사와 본질을 알기 쉽게 정리한 선 입문서.
제1부 아름답고 힘찬 선의 지혜
제2부 선의 기원과 본질
제3부 선의 탐구, 선어록을 읽는다
일지 지음/신국판/390쪽/값 8,000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육조혜능스님의 금강경구결 최초 수록
금강경 육조대사구결
금강경구결은 금강경의 내용을 간결하게 압축한 금강경의 핵심이다.
1084년 중국 나적스님이 당시에 유통되던 판본들의 오자·탈자를 바로잡은 것을 최초로 번역한 이 책은,『배불론』을 쓰려다『호법론』을 쓴 당나라때의 재상 장상영(無盡) 거사가 각 품마다 간략한 해의를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육조 述 · 이동형 譯 · 송근일 監修
신국판 양장/233쪽/값 6,500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큰 스님 수행 한담

정성껏 가꿀때 복받습니다"

정진중 망상 없애려 하면
더 힘들어지니 내버려두고
화두에 몰두하면
자신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운경스님의 젊은 시절 당시 불교계의 지도자 스님들이 봉선사에서 기념촬영했다. ①서옹 고불총림 방장 ③월하 조계종 증정 ⑤탄허 前 월정사조실(입적) ⑥영암 前 조계종 총무원장(입적) ⑨운경 봉선사 주지 ⑩운허 前 동국역경원장(입적) ⑪구산 前 조계총림 방장(입적) ⑫석주 칠보사 조실 ⑬고암 前 조계종 종정(입적)

무슨 특별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합니다. 기도는 우선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심과 위신력이 온 누리에 넘치고 있는 것을 깊이 믿고 감사하며 일심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사를 자비한 마음으로 대하며 자비행을 펼치고 결코 분노나 증오를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불 보살님과 같은 원(願)을 세워 불보살님의 위신력이 함께 흐를수 있도록 아견과 교만과 삼독심을 멸하여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비우기 위해서는 참회가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참회할 때 모든 아집과 번뇌의 때와 장애의 벽들이 허물어집니다. 이러한 깨끗한 마음바탕 위에 일념삼매로 기도를 올릴 때 환희심도 생기고 신심이 확고해지고 따라서 그 기도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와 기도는 절대로 미루면 안됩니다"

분노·증오 멸하고 매사 자비심으로 대하길

하여튼 나는 고담스님 말씀을 듣는 즉시 강화 보문사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생동안 중노릇 잘하고 퇴속치 않게 해주고 부처님 진리를 잘 성취하게 해 달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삼칠일동안 정성을 다 했어요. 그 기도인연인지 큰 과오없이 지금껏 부처님도량에서 수도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인사가 큰 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인사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수원 용주사까지 걸어가서 하룻밤 자고 김천 직지사까지 갔어요. 거기서 청암사로 해서 해인사로 갔지요. 해인사 퇴설당 참선방에서 두해를 지냈지요. 강원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문경 김용사 강원에서 경공부를 했지요. 치문으로부터 사집 사교 대교 공부를 했어요. 경을 다 배운 사람은 참선공부를 했는데 우구는 참선부터 공부하라고 하지만 난 교종본찰로 알려진 봉선사와 인연을 맺어서인지 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선시불심 교시불어(禪是佛心 敎是佛語)'라 했습니다.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참선도 열심히 해야 하고 경도 부지런히 익혀 부처님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상 먼저 교를 알고 선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처님이 가르치신 근본이치를 알아 그것이 든든한 밑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와 선을 자동차의 양 바퀴처럼 굴려야 합니다.

해인사 선방에서 두철을 지내고 대승사 수덕사 금강산 표훈사 유점사를 두루 다니며 운수행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점사에는 강원만 있고 선원이 없어 만공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선방을 내자고 공론이 되어 내가 공식 사찰공문을 들고 만공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마침 금강산을 둘러본 적이 없다 하시며 쾌히 승락을 하시어 여름안거후 유점사에 오셨습니다. 그때 모시고 수행을 한 것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그때 큰스님들은 참선의 목적은 마음을 밝혀서 원래 맑고 밝은 자성의 본체를 깨달아 청정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며 부지런히 닦을 것을 자나깨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도 겪었듯 그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진중에는 온갖 망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망상이 생길때 망상을 없애겠다는 집착을 보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망상은 망상대로 내버려 두고 화두를 놓치지 말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념이 다 생기지만 망상이 오거나 말거나 계속 화두에 몰두해야 합니다. 마치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거세게 쳐도 노를 잡은 뱃사공이 유능하면 제 갈길을 결국은 갈 수 있듯 화두를 잡은 마음이 확고해야 자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책상에는 〈보현행원품〉을 비롯 몇가지 경전이 늘 놓여 있습니다. 수시로 보며 독송하기 위해섭니다. 부처님 제자라면 불경을 하루에 한시간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읽거나 염불을 하거나 좌선을 할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순화됩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이 순화되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기쁘고 편안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이웃이 편안해지고 나라가 편안해지고 세계가 화평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고 찡그린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치 않다고 보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편안치 못하다고 봐야 합니다.

곧 설날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복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덕담들을 흔히 하지요. 나도 새해에 그러한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요새 어떤 불자들은 '복많이 지으십시오'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복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치(愚癡)를 다스리고 자비심으로 분노심을 다스리면 복은 저절로 찾아듭니다. 우리들 모두는 복전(福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에다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면 온갖 작물이 자라듯 마음의 밭에 선행을 심으면 복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의 8복전을 가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샘을 파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일

△깊은 내가 있는 곳에 다리를 놓아서 쉽게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는 일

△험한 길을 잘 닦아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봉양하는 일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공경, 공양하는 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일

△법회를 열어서 누구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일

이중의 어떤 것이라도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깨우친 복, 깨달음을 얻어서, 짓고 받는 복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삼천대천세계에서 제일 큰 산인 수미산왕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이 경의 사구게 한구절만이라도 받아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글을 줄줄 읽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본뜻을 확연히 깨닫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틔워주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복짓는 일을 많이 하십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02

박 순 달

4大와 原子 ④

원자설

산소·수소등 발견 4원소설 오류 판명

공기 원소아니라 질소등 원자 결합체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시대에서 4원소설이 정립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물질의 기본에 대해 일원론과 다원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기원전 4,5세기 데모크리토스는 일원론을 주장하면서 모든 물질은 원자(atom)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원자로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원자가 다른 특성을 가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아낙사고라스는 물질의 기본은 여러 개로 구성됐다는 다원론을 주장하고 우리감각이 인식할 수 있는 종류만큼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물질은 결국 분할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분할 유한론과 한없이 분할할 수 있다는 무한론이 있었다. 데모크리토스는 분할유한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는 모든 물질은 원자이상 분할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아낙사고라스는 모든 물질은 끝없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서양에서는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른다. 로마시대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번창하고 기독교 교리가 모든 것을 우선하여 자유로운 학문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학설을 주장하여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판정되면 화형에 처해지곤 했다. 브루노의 화형, 갈릴레오의 사형선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13세기에 이르러 문예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과학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다. 16세기에 이르면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16세기 헬몽은 4원소설에 있어서 불의 원소설을 반대했다. 물질이 불 속에 있으면 작열상태의 가스와 연기뿐이라는 사실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원소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더욱 확실해지는데 17세기 보일은 "내가 말하는 원소는 어떤 '원초적이고 단순한' 또는 '다른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섞이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그것은 완전한 화합물이라 일컫는 온갖 것들을 만드는 성분이며 화합물이란 결국 그 성분으로 분리되는 성분이다." 라고 했다. 예로 녹쇠는 구리와 아연으로 분리되는 도중 산화수은에다 이 볼록렌즈를 대고 태양을 쪼였더니 거기에서 어떤 기체가 나왔다. 그런데 이 기체를 모아 그 안에 촛불을 넣었더니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그것을 마셔보았더니 폐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18세기에 들어와 근대 화학의 아버지이고 연소론을 정립한 라보아제가 이것을 산소라고 명명하고 타는 것도 물질이 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로써 타는 것은 물질속에 타는 물질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워싱톤포스트지가 작년에 과거 1000년동안 최대의 오류는 물질 속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불의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카벤디쉬는 수소, 질소를 발견하면서 공기는 질소 79.16%, 산소 20.84%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한다. 1894년에는 공기 속에서 5개의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질소, 산소, 탄산가스, 수증기외 알곤, 헤리움,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의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공기가 원소가 아님이 분명해졌고 그래서 기원전 4세기부터 2천년 가까이 믿어오던 4원소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울대교수·산업공학과〉

案內

포교지도자양성고시

포교는 불교의 생명이며 포교사·법사는 불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사와 같습니다. 자아발견과 인간자각을 위해 하심과 인욕행을 배우며 지혜와 자비로 평화의 길·봉사의 길·해탈의 밝은 길을 밝히는데 눈과 손이 되어주시고 보살서원으로 정진하실 포교사·전법사·법사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시위원회

●증명 : 송서암(전 조계종 종정)
강석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김혜암(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안덕암(전 태고종 종정)
●고문 : 무진장스님, 성암도스님, 김태응스님, 김법혜스님 이외윤·김명윤
●총재 : 윤호석
●고시위원장 : 월운스님
●고시위원회 : 오형근·김영태·조용길
●집행위원장 : 성순경

고시문제

●포교사 응시자 - 불교학·불교사중에서 본인이 연구한 부분에서 200자 원고지 50매로 논문작성하여 제출.
●전법사 응시자 - 원시불교·소승(부파)불교·대승불교 가운데서 본인이 연구한 부분에서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논문 작성하여 제출
●법 사 응시자 - 원시불교학·삼론학·유식학·정토학·구사학·밀교·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 중에서 본인이 연구하고 관심있는 부분에서 150매 내외로 논문작성하여 제출
※「처음 응시자는 포교사, 포교사는 전법사, 전법사는 법사로 응시함」

구비서류

1. 고시지원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복사)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진 4매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5. 호적등본 1부
6. 포교사자격자는 포교사증 사본 1부
(도장을 두군데 정확히 본인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료 : 50,000원 ※온라인번호 -주택은행 490701-94-200265〈예금주:(사)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자격 득 한후

- 합격자에 한하여 품계식거행
- 연수 및 분기별교육예정(사회 저명 교수 초청특강)

논문마감 1997年2月10日 18:00까지 제출

면접고사 1997年2月19日 14:00
(전형료 납부후 논문제출하여야 면접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장 소 불교방송국 3층 법당(마포구소재)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국여법사회
후 원 : 불교방송·불교TV·현대불교·법보신문·주간불교·대한불교

문의처 : 포교지도자양성고시위원회 총무처 ☎ (02)395-2571/2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60호 FAX(02)395-2574

고은 불교대하소설



인담의 스승 담인

어린 행자 우식과 만우의 시신을 난바다에 띄워버리고 돌아오는 뱃길은 매우 험난하였다. 어둠과 함께 거세어진 파도더미에는 도무지 울짱 없는 마당처럼 어떤 대비도 없을 따름이다.

그러자니 효영 명오와 함께 떼배를 탔던 인담은 멎권이나 파도더미에 맞아 바다에 나가떨어질 뻔 하였다. 다만 세 사람이 즉자하고 떼의 나무기둥을 들어쥐고 엎드려 그런 파도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에야 슬그머니 일어나 조금씩 저어가는 삿대질을 시늉하였다.

우녀와 대해 상을 소석들이 섬에서 오로지 캄캄한 바다 위의 인광 불빛만 쳐다보며 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기다림과는 상관없이 인담들은 섬에 가까워졌다는 짐작으로 마음을 좀 놓았을 때 들이닥친 파도더미에 명오가 물속으로 휩겨져 나갔다. 그를 구출하는 일로 시간이 걸렸다.

"상수!" 라고 인담이 불렀다. 보타락가산이 있는 곳.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곳을 지향한 상수의 비원으로 끝내 그는 난바다의 어딘가에 떠내려가게 한 것도 인담의 뜻이 아니던가.

보타락가산의 섬은 이 커다란 서해의 어떤 섬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런 섬은 찾아낼 수 없는 부재로서의 섬인지도 모른다.

관세음보살이 머물면서 바다의 여러 위난에 허우적거리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보타락가산의 힘은 당장 인담과 효영 명오에게는 미치지 않고 있었다.

본디 보타락가산이란 아주 옛날 조리(早離)와 속리(速離) 형제가 어린시절 표독한 계모에 의해서 외딴 무인도에 내다 버려져 그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곳에서 굶어죽은 참극의 섬이었다.

그런 섬의 악업을 씻어낸 장토에의 발원으로 관세음보살이 상륙하여 바다 위와 바다 밑의 많은 중생을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저 페르시아 사막을 건너가면 나타나는 바다의 위쪽 희랍이라는 여러 도읍국가 밖의 바닷가에 해신이 있어 바다의 악을 경계하여 다스리는 것처럼 바다 위의 관세음도 바다의 파도소리 사이로 들리는 슬픈 중생의 소리를 잘 살펴서 그 보살의 힘이 달려가 그 중생의 벗이 되어 함께 살아나는 것이 보타락가산의 신앙 첫걸음일 터이다.

인담이 그런 상수의 비원을 떠올려 그의 이름을 딱 한번 부르자 거기에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파도의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명오의 몸속에서 삼킨 물을 토해내어 숨이 터진 것이 다행이었다. 명오의 위기와 함께 효영의 기진맥진한 상태도 뭔만한 것이 아니었다.

신새벽에야 생시가 아닌듯이 아무런 감각도 없게 된 세 사람은 무욕도의 남쪽 기슭에 닿았다. 그것은 도착이기 보다 표착이었다. 아니 표착 자체에 대한 실감도 없었던 것이다.

우녀는 상을에게 백비탕을 끓여 그들의 타들어간 목, 찬물 먹은 목을 씻어내게 하였다. 백비탕이란 뜨거운 맹물이 아니던가.

오랜동안 몸에 익숙한 무욕도의 물이라 그들의 지친 심신을 어느 만큼이라도 회복하는데는 도움도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녀가 중얼거렸다.

"너도 나도 부처가 될 겨를이 없구나."

그녀는 한 시름을 놓게 되어 소석과 함께 아래 처소로 내려갔다. 그 처소에 촛불이 밝혀졌다가 바로 그것을 껐는지 그 일대가 괴괴한 어둠 속에서 구름장이 걷힌 하늘의 한 무더기 별빛으로 물들어져 있었다.

인담은 맨 위쪽 선방 한쪽의 그의 선방으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도 각각 그들의 요사채로 들어가 무욕도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이 새벽에야 굉상으로 물 아갔다.

동쪽 바다 건너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가는귀 먹은 사람에게 들리는 것처럼 멀리 들려왔다.

이미 인담은 거의 혼절한 것처럼 깊은 잠의 늪 속으로 가라 앉아버렸다.

그런 잠도 한 여름 9순(一夏九旬)으로 말할 수 있을까. 90일동안 한 방석 위에 앉아서 여름 한철을 보내는 일이 그것이거니와 그런 좌선에서 일어나면 그동안 앉았던 방석은 꼭 꺼져서 더이상 방석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인담의 잠은 그런 좌선 뒤의 방선으로 하루쯤 무던히도 깊이 잠든 상태와 비슷하였다.

하지만 그의 잠은 길 수 없었다. 새벽녘의 잠이야 예불을 거른다 하더라도 해가 뜬 아침에는 깨어나 있어야 하였다.

그런데 그 짧고 깊은 잠도 온전한 잠이 아니었다. 그 잠 속에서 꿈을 꾸었다. 실로 오랜만에 꾸어지는 꿈이었던 것이다. 수행자에게 꿈이 잦으면 병통이다.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인담은 우녀의 수기(授記)에 가까운 꿈과는 달리 바위기 꿈을 꾸지 않듯이 거의 꿈없는 나날로 살아온 것이다.

그런 그가 죽을 고비를 몇번이나 넘기고 온 지친 심신인데도 그 꿈은 잠 속으로 활짝 태어난 꽃과 같은 꿈이 들어온 것이다.

그 꿈 속에 그의 스승 담인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조선 숙종시대의 인담에게 고려시대의 난세에 세상을 아파하며 숨어 살았던 스승 담인이 인담의 꿈속에 나타났으니 꿈꾸는 동안 잠든 인담의 몸이 자꾸 꿈틀거릴 수 밖에 없었다.

일찌기 스승없는 중이라 여기저기서 근본 없는 중이라고 따돌림도 받고 괄시도 받았으나 그 때문에 스승을 삼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문하에 기웃거리지 않고 그 행동거지가 도리어 의젓하였던 것이다.

아니 출가승까지 세속의 부자나 모녀 또는 당파다 학파다 해서 말착되는 사제(師弟)라는 것이 끼치는 폐단이 하나둘이 아닌 사실을 짐작하는 그로서는 차라리 스승 없는 중이 얼마나 지옥에서 멀리 있는가 하고 자랑삼을만 하였다.

"어느 스님을 은사로 섬기는가?" 라는 첫 질문에 "소승은 무사승(無師僧)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떳떳이하여 떡은 떡 치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터였다.

그렇게 지내는 어느날 깊은 밤의 난데없는 꿈속에 당대도 아닌, 먼 지난 시대인 고려 중기의 한 은거승 담인이 하얀 수염발이 춤추며 나타나 "내가 그대 스승이 되면 어떠하리"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꿈속에서 "오 스승이시여. 멀고 먼 스승이시여. 이제까지 스승 없이 살아왔으나 이로부터 스승을 받들고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해버린 것이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

"스승이여 한 궤짝에 뱀 네마리(一篋四蛇: 지·수·화·풍의 사대)를 넣고 다니다가 이제야 법당에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겠지. 현세불도 아니요 당래불도 아닌 전생다생의 연등불 정도로 알고 나와의 인연을 이어가보세나."

스승은 말이 술술 나오는 김에 더 이었다.

"참 내게도 이름 하나가 붙어있다네. 어디다 팔아먹으려면 이름이라도 있어야 불러낼 것 아니겠나… 내 법명이 담인(談印)이라네."

"스승이시여."

하지만 그동안 그는 생시에도 스승에 대한 생각은 별반 하지 않았다. 너무 스승에의 애착이 있으면 그것도 공부의 장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스승도 그런 제자의 뜻을 헤아려서인지 인담의 꿈 속에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꿈속에서까지 스승은 저 아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를 지극히 생각하는 처지인지도 몰랐다.

아무튼 그 중세의 스승이 근세의 제자에게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이다.

스승 담인은 처음 꿈 속에 나타날 때처럼 긴 수염 따위가 없었다. 하지만 말소리는 아직껏 굴 속의 메아리처럼 겹치는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대 인담!"

"……."

"그대 인담! 오랜만이로다."

인담의 입은 아무리 열려고 애를 써도 다물어진 그대로였다. 무척 안타까웠다.

> "앞으로…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 어디로 가는가
> 이것을 깊이 참구할 일이야"

"앞으로…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깊이 참구(參究)할 일이야."

어머니이기보다 형이 아우한테 타이르는 것도 같았다. 그렇게 먼 스승은 제자의 마음 가장 가까이 나타난 것이다.

"나야 아직 이 땅의 귀신노릇이나 그림자노릇이나 아니면 짐승노릇이나 더하다가 떠나겠지만 그대는 어서 가서 내가 일손 따위 다 놓은 뒤의 쉴 자리라도 만들어 두게나…."

"……."

"명두(明頭)로 나오면 명두로 누르고 암두(暗頭)로 나오면 암두로 누르는 일도 없었다.

"앞으로…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깊이 참구(參究)할 일이야."

"모레쯤 설악산 곰으로 태어나겠네 … 인담 그대도 얼마 안남았네"

"자네 이름은 내 이름을 거꾸로 부르면 되겠네. 내가 담인인즉 그대는 인담이라 하게나. 앞으로 바다 한복판에 있어도 사방에서 그대 이름을 불러댈걸세."

그런 뒤 스승 담인은 그의 오랜 벗이었던 불우한 천재시인 임춘의 문집을 감추어둔 곳에 가서 그것을 꺼내다가 세상의 햇빛을 보게 하라는 자못 풍류적인 분부를 내렸던 것이다.

그는 먼 스승의 뜻대로 그 문집을 찾아내어 세상에 맡겼고 그 자신의 정진도 한 단계 높여 무욕도에 도량을 개척한 것이었다.

"내가 이제 그대한테 온 까닭이야 왜 없겠는가. 아무래도 그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같아… 내가 한번 먼 후대에 둔 내 제자를 한번 보고자 해서였다네."

스승은 어느 때보다도 그 자신의 다정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선승의 서릿발같은 기상 따위와는 정반대인 마치 제 몸으로 낳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었다.

새삼 인담은 스승이 있는 중(有主沙彌)이었다. 그는 입이 열리지 않자 속으로 엉엉 울부짖어 온몸으로 말하고 울수 밖에 그동안은 왜 재미를 보았겠지… 그러나 그대는 제발 그러지 말게… 누가 독 묻은 화살을 날려 그대에게 거량(擧揚)을 하거든 그저 우둔한 노비인양 저으기 고개나 갸실거리거나 해해 하고 침이나 흘리는 입으로 맞아들이게나… 앞으로의 큰 일(大事)은 실로 바보 천치에게서 나올 터인즉… 인담! 나 가네… 내일 모레쯤 나는 설악산 어느 골짜기에 가서 곰으로 태어날 작정이라네."

"!"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찰안내
■위치 : 경북 의성군
■법당 1동, 산신각1동, 미륵님, 요사채2동(현대식), 사용평수 :1300평
■가격 : 1억2천(가격절충가능)
연락처 : 0576)862-0674

포교당 안내
▶ 50평 ·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기타절충
연락처 : 02)248-0479

氣 치료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탈종공고
한국불교 태고종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6번지 29호
주 지 : 이명순(진명)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 · 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년 2월

탈종공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찰명 : 관음사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 510번지
주 지 : 한정숙(법연)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 · 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년 2월

참 회 문
저희 불교방송 노동조합원들은 불교방송을 아끼는 불자여러분 앞에 머리조아려 참회합니다.
금번, 저희 불교방송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말미암아 불자 여러분에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무엇보다 저희 조합원들의 불찰때문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노동조합이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불교방송의 발전을 위해 저희 노동조합이 힘을 보탤 것을 불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이번사태로 불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고 깊이 참회하겠습니다.
불기 2541년 1월 29일
불교방송 노동조합 위원장 선상신외 조합원 일동 합장

간경화 · 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전문시술원
좌골신경통 (3회끝)
543/7306 711/4370
張三洙 합장

포교당 안내(하실분)
●위치 : 도봉구 수유리 32평 4층
●보증금 : 3천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 1천5백만원
※ 상담후 절충가능
전 화 : 902-9178
3492-4678

탈종공고
대한불교 삼론종
사찰명 : 무 애 사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수유5동 451-115호
주 지 : 신상철(무애)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 · 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년 2월

사 원 모 집
전통사찰음식 보급에 뜻을 둔 유능한 인재를 널리 초빙합니다.
▷ 경리 1명(PC가능자)
▷ 유통관리 ○명
(불교용품 취급 유 경험자 우대)
연락처 : (02)245-0904
전통사찰음식 연구소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우학스님 수필 · 시 · 소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할머니 부축해드릴께요"

연꽃마을 '효도학당' 현장

중·고생 124명 참석 양로원 1박2일 생활

"가족없는 노인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그렇게 감동적이냐" "꼭 한번 참가하고 싶다"

설날을 앞두고 서울을 물론 지방불교학생회까지 확산된 '연꽃 효도학당'.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지난해 12월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련한 효도학당이 지난 1월 26일 막을 내리자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궁금증과 아쉬움을 표해왔다. 무의탁 양로원 노인들과 함께 1박2일동안 생활하면서 효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는 '효도학당'은 신세대 청소년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큰 몫을 해내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할머니들의 품속에 있는 순간이 행복해요"

지난 1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용인무료양로원.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곁에 다가앉아 어깨를 주무르는 충주 황룡사 불교학생회 변주연·남궁정금양(이상 충주여중 2년)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집에서 이미 해왔던 일이어서인지 이들에게 전혀 낯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왠지 할머니들과 가까이하기 싫었습니다. 이상한 냄새도 나고 구질구질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도 할머니들처럼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한결 가깝게 느껴지더라구요."

이들 여학생들도 보통 학생들처럼 스케이트도 타고 싶고 여행도 떠나고 싶은 꿈 많은 여고생이지만 이 효행학당을 위해 자신의 개인 일정을 모두 미뤄놓고 있다. 대신 시골할머니 찾아가는 마음으로 용인무료양로원을 찾았다. 입소첫날은 절하는 법, 전화받는 법에서부터 효도하는 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했다. 예절교육을 받고 난 청소년들은 지나가는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들에게 손을 내밀어 부축했다.

용인양로원 연꽃 효행학당을 거쳐간 학생은 124명. 이들 모두가 친손자손녀처럼 효행을 펼쳐 할머니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다. 청소년들이 가장 뭉클했던 시간은 할머니들이 혼자될 수 밖에 없었던 사연과 이곳 저곳을 전전해야만 했던 인생고를 눈물을 훔치며 털어 놓을 때였다.

장래 노인복지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원인묵군(충주 대원고 2년)은 "가족없이 이런 산골에서 혼자 지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며 "이곳 양로원 할머니들 만큼이라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편지도 쓰고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꽃마을측은 이번에 실시한 효도학당을 계기로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효도의 참다운 의미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김중근 기자



◇용인 양로원 효도학당에서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고 안마하며 효행을 실천하는 학생들.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고 효과적인 공부방법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

길음복지관 '공부잘하기 특강' 개설

"집중력 성적 좌우…칭찬이 보약"

'공부해라' 강요 오히려 역효과

효과적인 공부법 7단계 소개 '눈길'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없나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지상과제인 공부잘하기. 이러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강좌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지난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부잘하기 특강'을 개설했다.

공부잘하기 특강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계발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잘하는 학생이 되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복지관은 이번 특강을 이론교육이 아닌 성격검사와 집중훈련을 통해 공부잘하는 근본요인을 찾자라는 취지로 마련했다. 첫날부터 공부를 잘하기 위한 본질찾기에 나선 학생, 학부모, 강사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대부분 부모들을 자녀의 능력 찾기보다는 무작정 공부 잘해라고만 합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역효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공부잘하는 비결은 학생들의 자신감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들은 자녀의 능력을 키워주고 북돋아 줘야 합니다." '공부잘하기의 참모습 알기'에 대한 김수형강사(숙명여대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연구원)의 열강이 시작되자 수강생들의 눈빛은 더욱 초롱초롱 해졌다.

또 김강사는 "부모와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장단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칭찬을 많이 할수록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자녀교육방법을 찾기 위해 아들 김승관(온곡중 1년)·승윤(온곡초등 6년)군과 함께 왔다는 이애란(39·서울 상계동)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 지 궁금하던 중 이번 강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효과적인 학습방법 7단계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첫째 공부내용 익숙해지기, 핵심파악하기, 능동적인 독서법, 효과적인 암기법, 내것 만들기, 나도 선생님, 심화학습이다.

이밖에도 성격검사(MBTI), 주의집중훈련, 공부방법 진단검사 등을 비롯 개인의 특성에 맞는 노트정리, 시험준비법 등의 효과적인 공부방법 강의도 진행됐다. 공부습관의 개선 및 공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강의의 특징이란 것이 복지관측의 얘기다.

이성희(43·서울 창동)·신현수(노곡중 2년) 모자는 "아이들에게 무작정 공부하라는 식의 지도방법보다는 취향을 고려해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지도방법으로 지도하면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된 '공부잘하기 특강'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교육지도방법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

신행단신

정토회 16일 '100일 기도' 입제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는 오는 16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천일결사 중 제4차 100일기도 입제식'을 봉행한다.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법문과 기도로 진행된다. 참가신청마감은 오는 11일까지.(02)581-4077

소년소녀가장 가족캠프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박광서·남지심)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소년소녀가장 가족캠프(용기백배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맛있는 음식만들기 및 콘테스트, 썰매대회, 등반, 토론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한편 이번 캠프에는 선우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소년소녀가장들과 즐거운 한때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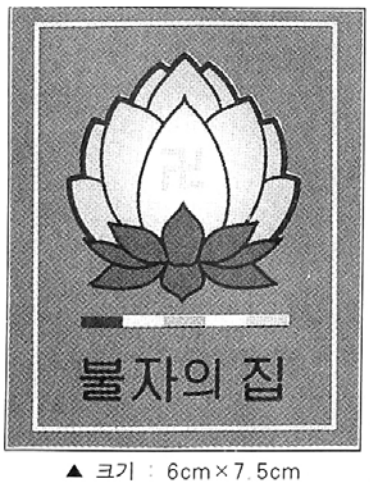
어린이 칼라믹스 무료특강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어린이 칼라믹스 무료특강을 개설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학용품과 각종 생활소품들을 만들며 시간은 오후2시부터 3시까지. (02)985-0161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크기 3.5cm×10.5cm

■ **보급방법** :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고 독

이자임결혼연구원

어둠이
그리움되어
도시의 끝 자락을
물들입니다.

침묵과 고뇌의 방
수없이
적막을 깨뜨리고
공허한 가슴에
소슬한 바람이
그대의 맑고 깨끗한 이슬이 되어
가슴으로 젖어 듭니다.
솔잎바람
달빛 향기 스미는
그대 창가에 풀잎 끝 마다
그리움으로 영키어
가만히 내려앉은
방 이슬이 되겠습니다.
머얼리 과랗게 부셔져 내린
파도를 업고
서로의 먼 눈빛으로
젖어

고독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辛,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불교 다이어트…"성인병 물렀거라"

학림스님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펴내



젊어지는 행법 생리 불순이나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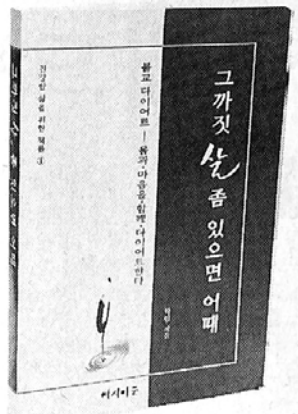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른다. '살을 빼야지' 하는 강박관념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답답한 마음으로 심신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불교적 다이어트는 없는 걸까. 감량만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교 다이어트라면 심신수양을 위해 실천해 볼 만한 것이 아닐까.

불가 전승 심신조화 양생법 모아
식욕 다스리기·숙면·쾌변법 제시
요가·호흡법등 삽화 곁들여 소개

학림스님(예천포교당 주지)이 쓴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여시아문 刊)는 2,500여년 간 불가에서 전승되어 온 양생(養生)의 지혜를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본격적인 불교 다이어트 책이다.

호흡과 요가 등 불가의 전통 수행법을 다이어트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책은 다이어트 성공의 열쇠를 '식욕 다스리기', '쾌면(快眠)', '쾌변(快便)' 등으로 보고 그 방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소식(小食)하면서도 맑은 정신을 잃지 않는 선방 스님들의 용맹정진을 가능하게 하는 차(茶)와 전통사찰음식을 소개해 실제 경험을 통한 몸과 마음, 식생활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건강법을 제시한 점이 효능·효과만을 나열하고 있는 일반 건강서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이 아니면 선뜻 시작하기 힘든 호흡법과 요가도 삽화를 곁들여 다이어트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림 참조). 부처님 시대부터 수행과 함께 행해져 왔던 승가의 건강비법을 통해 '마음은 호수 같이, 몸은 새털 같이' 유지하게끔 하는 점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이다.

학림스님이 이같은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현대인의 생활이 승가의 일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주로 앉아서 일하며, 머리를 많이 쓰고,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의 생활형태가 좌선을 위주로 하는 승가의 생활과 외형상 닮아 있다는 것. 또 경전 곳곳에 지나치리만큼 자세하게 공중(公衆) 위생과 개인 위생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점도 한 이유였다.



"늙음과 병듦,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할 때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라는 스님은 이 책의 내용이 단순한 다이어트의 방편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오랜 세월 쌓여온 수많은 수행자의 경험들이 무리없이 살을 빼거나, 체질을 개선하고 병을 고치거나, 맑고 건강한 정신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음식은 다른 생명을 죽여서 얻는 것'임을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도 되길 바랍니다."

김재경 기자

명사추천 불서 100선

효봉어록

효봉(曉峰)스님의 '曉'는 새벽을 의미한다. 새벽의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는 삶이란 신선하고 정결한 맛을 느끼게 하리라. 나는 효봉스님(1888~1966)을 생면(生面)한 적은 없지만 〈효봉어록〉(불일출판사 刊)에서 사진을 볼 수 있었다. 흔히 선승의 면모를 빼어난 총명성으로 기대하자면 너무나 평범한 얼굴 모습일 것이다. 세상의 명리(名利)와는 아무 상관없는 밭일을 하는 시골 할아버지의 얼굴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거기에서는 한때 판사로서 기염을 토했을 권위도 명민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요즈음 세상이 급하게 변화하고 있다. 밭일하는 시골 할아버지가 그 순수함을 잃고 명리에 집착해 가고 있는 현상이다. '세계화'니 '정보화'니 하는 구호들이 사람들을 정신없게 하고 있다. 그런 구호들에 초연한 채 한가하게 밭일을 하는 시골 할아버지는 정말 선승의 면모와 다름 없으리라.



이 희 재
〈광주대 교수·철학〉

내가 〈효봉어록〉을 읽게 된 것은 70년대 말, 효봉스님의 사제(師弟)이신 향봉(香峰)스님 처소에서 3일동안 시봉하던 때였다. 인연이 되지 않아 출가하지는 못했지만 이른 새벽 별하늘을 바라보며 느낀 적막감, 길을 걸으며 아스팔트 사이에 핀 잡초에서도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절에 〈효봉어록〉을 마주할 수 있었다.

"無心法 백가지 지혜보다 낫다"
법문·게송·서장 빠짐없이 정리

"무심법(無心法) 승어백종지혜(勝於百種智慧)"

한 무심한 법(法)이 백가지 지혜보다 낫다는 이 말씀은 어록의 정수라고 생각한다. 백가지 지혜가 번뜩이는 지금 세상은 백가지 해악(害惡)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백가지 진수성찬으로 대식(大食)과 미식(美食)을 즐기는 이들은 거기에서 백가지 질병이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거친 밥에 나물 한그릇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에겐 결코 성인병이라는게 있을 리 없다. 이것이 비단 밥먹는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따위로 신음하고 있는 백종지혜(百種智慧)의 실상이다.

〈효봉어록〉은 시골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다. 소박하게,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시간까지도 무심(無心)하게 천진(天眞)하게 사셨던 그분의 자취를 후학들이 모은 한권의 책이다. 연도별로 스님의 상당법어(上堂法語)를 기록하고 있으며, 때와 장소에 맞게 수시로 설한 법문과 각종 게송(偈頌), 서장(書狀)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있다. 이밖에 효봉스님 행장과 연보, 관련자료가 스님의 거룩한 생애를 그리고 있다.

불교적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효봉어록〉은 불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 권의 책이다.

경봉선사는 이 책 서문에서 효봉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설파했다.

"말과 글을 떠나 부처 없는 곳에 종사의 설법이 붓끝에서 나온다. 이 일을 빛과 소리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 구름 밖 봉산에 이 일이 이루어졌네."

화제의 책

근본불교의 가르침 — 김정빈 지음



작가 김정빈씨가 쓴 〈근본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원초적 가르침이 담긴 〈아함경〉을 통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사제(四諦) 팔정도(八正道)임을 밝혀내고 그 커다란 틀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풀어내는 입문서다. 저자는 "우리 불교는 이제 믿는 불교를 넘어 아는 불교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아는 불교에서 닦는 불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평소 지론대로 까다로운 철학과 형이상학이 아닌 수행법을 중심으로 근본불교를 설명하고 있다.

제1장 '진리를 향하여'에서는 지금까지 알아온 불교에 대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는지를 요목요목 밝혔다. 이어 제2장 고성제(苦聖諦), 제3장 집(集)성제, 제4장 도(道)성제, 제5장 멸(滅)성제를 필자 특유의 논리성과 분석력으로 도표와 비유를 통해 정리했다. 〈불광 7천원〉

'아함경' 수행법 중심으로 의미 분석

출판화제

천태종, 신행수기모음집 2권 출간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최근 신행수기모음집인 〈믿음으로 피운 연꽃〉 〈내가 만난 관세음보살〉(열린불교 刊) 2권을 펴냈다.

천태종도들의 생생한 신앙 체험을 기록으로 모은 이 책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주경야선(晝耕夜禪)으로 관음정근에 매진, 수행불교를 강조하고 있는 천태종의 신행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신행 안내서이기도 하다. 생의 뜻하지 않은 역경을 통해 오히려 진실한 믿음을 만나고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을 몸소 체험한다는 이야기 등 "믿음은 道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주제가 일관되게 강조되어 있다. 각 권말에 실린 △전현수 신경정신과원장의 '기도의 정신의학적 효과' 등 4편의 특별기고문도 신행의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광준씨 '한국적 치료 심리학' 등 발간



동서심리학연구소 이광준소장이 禪심리학과 치료심리학을 다룬 연구서인 〈한국적 치료심리학〉(행림출판 刊)과 사회심리학적 문화분석서인 〈일본 그 문화와 사회〉(학문사 刊)를 동시에 펴 냈다.

동양적·한국적 치료심리학에 있어서의 철학적 배경과 실제적 임상연구에 필요한 논문을 엮은 〈…치료심리학〉은 선심리·유가심리·동의(東醫)심리학편으로 구성돼 있다. 선심리학편은 제1장 '禪과 카운셀링에 관한 비교 연구' 제2장 '정신분석학적으로 본 禪의 一연구' 등을 담고 있다. 〈일본 그 문화…〉는 제1부 일본사람들, 제2부 일본문화, 제3부 일본사회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2부에서는 일본의 전통과 종교, 근대문화, 학문과 문화 등을 통해 일본인의 의식구조와 종교관을 밝혔다.

새로나온 책…



▲세계 7대 고승열전(김종성 옮김)=용수보살, 천친보살, 담란대사, 도작선사, 선도대사, 원신승도, 법연상인 등 고승 7명의 일대기를 통해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 소책자. 원저자인 작가 천창보(淺倉保)는 "불교가 산상불교에서 산하불교로, 승려불교에서 재가불교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망한다. 〈두레박 5천원〉

▲인도에서 온 편지(김남선 지음)=인도 최대도시 캘커타로 부터 바라나시의 싸르나트,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라 등 8대 성지를 돌아다보며 적은 현직 여교사(고척중학교)의 인도불적 순례기. 부처님을 상상과 현실로 만나는 한 불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대흥기획 5천원〉

▲만화 삼국유사(윤승운 지음)=〈삼국유사〉를 각색한 역사만화책. 수많은 큰스님들과 위인들에 얽힌 전설과 진귀한 이야기들 중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52가지 이야기를 재미있는 해석과 만화로 녹여놓았다. 〈동쪽나라 5천원〉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2(주강현 지음)=그냥 지나치기 쉬운 우리 문화, '쓰여지지 않은' 우리 문화를 복원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은 글과 함께 사진(200여 컷)으로 보는 우리 문화 답사여행기다. 〈한겨레신문사 7천원〉

▲종이공예 문화(임영주 外 2인 지음)=궁중이나 사대부 집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된 종이 공예품은 전통 무늬를 통해 당시의 미적 감각을 나타내었다. 종이의 부드러운 질감과 자연스러운 빛깔을 바탕으로 한 '실용의 미'로 여성생활 용품과 종교적 행사에 많이 쓰였다. '빛깔있는 책' 제187권. 〈대원사 3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2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7	禪 이야기	일 지	운 주 사
8	한글 아함경	고 익 진	동대출판부
9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10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구입문의:(02)737-0695

책방 여시아문 법공양 캠페인

한 권의 佛書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1. 어떤 결혼식

작지만 큰 선물

요즘 강 대리에게는 '토요병'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월요병도 아니고 '토요병'이라!
카드 대금 결제 고지서만큼이나 부담스런 결혼식 초청장.
대부분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기 십상입니다.
토요일 오후,
오늘은 박 대리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입장을 하고 주례사가 시작되자
강 대리는 사람들 속에 섞여 식당으로 갔습니다.
소란하기는 마찬가지인 식당에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돌아온 강 대리.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내면서 받았던 작은 선물을 기억하고는
무심코 선물을 열어 보았습니다.
순간, 강 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어수선한 결혼식장에서 받은 佛書 한 권.
강 대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동안의 어떤 결혼식에서도 가져 보지 못했던 진정한 축복을
두 사람의 신랑·신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법공양으로 권하는 佛·書·베·스·트·20

1. 마음닦는 길 지눌 원저, 강건기 강의 /신국판 236쪽 /값 4,000원 /불일	11.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백봉 김기추 거사 법어집 /신국판 변형 278쪽 /값 6,000원 /세계사
2. 천수경 이야기 김호성 지음 /신국판 216쪽 /값 4,500원 /민족사	12.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지음 /4×6판 158쪽 /값 3,500원 /효림
3. 영원한 자유의 길(성철 스님 법어집) 백련선서간행회 편 /4×6판 172쪽 /값 2,500원 /장경각	13. 깨닫는 밥그릇 강창민 엮음 /신국판 양장본 288쪽 /값 6,000원 /석필
4. 우물을 떠난 개구리 법륜 지음 /신국판 216쪽 /값 5,200원 /정토	14. 제 똥은 제가 누어야지 지묵 외 11인 지음 /신국판 214쪽 /값 4,500원 /민족사
5. 육조단경 정병조 역해 /신국판 206쪽 /값 4,500원 /한국불교연구원	15. 부처가 되는 100가지 방법 김성규 엮음 /신국판 274쪽 /값 6,000원 /큰산
6. 선·삼매로 가는 길 일타 편역 /신국판 224쪽 /값 4,000원 /해인사 출판부	16. 나를 보게 하소서 현장 지음 /신국판 280쪽 /값 5,500원 /민족사
7. 달마에서 경허까지 박영규 지음 /신국판 272쪽 /값 6,000원 /정신세계사	17. 석가와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글 /신국판 168쪽 /값 5,000원 /산하
8. 붓다-꺼지지 않는 등불 장 부아슬리에 지음, 이종인 옮김 /4×6판 200쪽 /값 6,000원 /시공사	18. 풍금 치는 큰스님 박상률 지음 /4×6판 양장본 220쪽 /값 6,000원 /우리출판사
9. 행복한 마음 김정섭 역 /신국판 양장본 530쪽 /값 5,900원 /김영사	19. 삶은 苦가 아니다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10. 깨달음의 거울 서산 지음, 법정 옮김 /신국판 230쪽 /값 5,000원 /불일	20.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0쪽 /값 7,000원 /여시아문

● 책방 여시아문에서 법공양 도서 구입시 드리는 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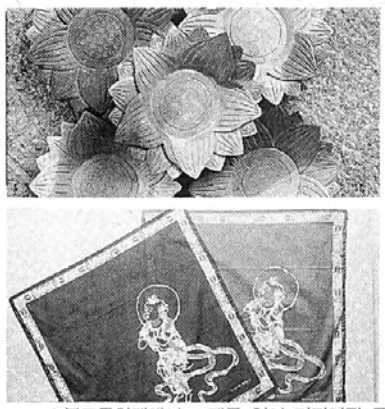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법공양용으로 50부 이상 구입하시는 책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결혼, 백일, 돌, 생일, 입학, 진급 축하, 49재 등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날에 이루어지는 법공양이
아말로 이 땅을 불국토로 가꾸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찾아오시려면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직통)/ 팩스 : (02) 737-0696

불교소재 문화상품
안만드나 못만드나



◇불교문화재에서 소재를 얻어 디자인된 문화상품들. 연꽃모양 목각 컵받침(왼쪽 위). 불화변상도의 동자승을 무늬로 한 손수건(왼쪽 아래). 불상의 얼굴부분을 이용한 열쇠고리(오른쪽).

자원 무궁무진…디자인 개발 상품화 '포교 일조'
불화문 손수건·석굴암시계등 외국인 선물 '인기'

한국을 처음 찾은 외국인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경복궁내 한국전통공예관을 찾은 불자 오옥주씨(25·회사원)는 실망감부터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외국인 친구에게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불교소재 문화상품을 선물하려 했으나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연꽃모양으로 조각된 컵받침(14,000원)을 골랐다. 전통소재 상품들은 많았으나 불교문화재를 소재로 한 것은 고를 것도 없을 만큼 찾기 힘들었던 것.

오씨는 '우리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라는데 그 훌륭한 문화재를 소재로 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세련된 상품을 만들 수는 없는걸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통문화상품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해 향후 문화상품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유산소재 디자인공모전을 오는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온 불교계도 불교문화재를 소재로 한 현대적이면서도 참신한 디자인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호암미술관등 각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상품개발이 활발해지고 따라서 불교문화재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의 개발도 차츰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불교계도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문화재단은 운영실 마켓팅부를 중심으로 고려불화문 손수건, 동자승 열쇠고리·목걸이, 연꽃문양 커프링크 및 타이택 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국보235호인 '고려갑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변상도안의 동자승을 소재로 한 면 손수건은 테두리에 잡귀를 쫓는 상징물인 금강저를 둘러 고려불화의 유려한 선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상품으로 세련감을 느끼게 한다. 국보133호인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의 연꽃을 든 동자승을 이용한 열쇠고리와 목걸이, 연꽃문양으로 만든 커프링크와 타이택도 호평받는 선물용 상품이다.

한국전통공예미술관 디자인실은 최근 한국문화 CI로 선정된 석굴암 본존불을 소재로 한 벽시계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연꽃문양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넥타이와 만다라손수건도 눈에 띄는 상품. 전통공예미술관의 마경임디자인실장은 "우리 것을 소재로 한 디자인일수록 외국선물용으로 인기가 크다"면서 불교문화재도 잘만 응용하면 훌륭한 소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문화재단 선임디자이너 박종성 연구원은 "불화 등 전통이미지를 현대화할 수 있는 소재는 찾기에 따라 무궁무진하다"며 "전통에 바탕을 둔 다양한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용품을 주로 디자인하고 있는 '선재마을' 대표 유지선씨는 "단청이나 문살문양중에는 일상용품에 이용할 만한 세련된 것이 많이 있다"며 "첨단 비디오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감각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지만 비용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75〉

소매 가득한 향기

曳杖尋幽逕 (예장심유경) 석장 끌고 찾아가는 그윽한 길
徘徊獨賞春 (배회독상춘) 요리조리 오가며 봄을 맛보다
歸來香滿袖 (귀래향만수) 소매 가득 향기 담아 돌아오는 길
胡蝶遠隨人 (호접원수인) 나비들 멀리서 나를 따르다

위의 시도 환성대사가 '봄을 감상한다(賞春)'한 시이다. 지난주에 스님의 시세계가 "물 흘러 꽃 피는" 경지라 했음이 다시 연상된다. 봄날의 한적을 만끽하는 한 시인이 여실하게 눈 앞에 아른거린다. 산 길을 외로이 걷는 스님이다. 동행자는 오직 지팡이 뿐이다. 지팡이란 몸을 의지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그럴 때는 나와 지팡이가 서로 의지하는 두 몸이다. 지금 스님의 석장은 짚는 지팡이가 아니라, 끌고 가는 지팡이이다. 서로의 의지가 아닌 내가 심심해서 끌고 가는 지팡이다. 지팡이로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지팡이이니, 이 길은 오직 나 하나일 뿐이다. 가는 길도 깊숙하고 그윽한 길이다. 어느 지향점이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기에 요리조리 오가는 배회의 길이요, 작자로서도 홀로(獨)라는 부사가 머리에 얹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봄구경이다. 굳이 봄구경이니 상춘이니 할 것도 없이 그저 봄과 내가 스쳐 지나고 있는 것이다. 지팡이를 끌다, 배회하다, 홀로 등의 단어들이 암시해 주고 있듯이 한가로움 그 자체이다.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홀로 무심한 한 스님만 남게 된다.

이렇듯 한가로움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이지만, 자연은 역시 무심함이 아니었다. 향기가 온 몸에 스며들었다. 향기가 가득한 소매이다. 누가 주워담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가득한 향기이다. 왜 굳이 소매일까. 스님의 장삼이나 선비의 도포 소매는 길고도 깊다. 호주머니가 없던 당시에는 이 소매 끝이 주머니 구실을 하여 어떤 물건이라도 담게 되어 있다. 지금 봄의 향기도 이것을 알아 이 소매 속으로 숨어든 것이다.

아름다운 향기는 멀수록 더욱 향내나는 법이니, 멀리서 나비들이 이 향내를 맡았다. 여기 멀리(遠)라는 부사의 의미가 향기만큼이나 짙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스님은 사탑이 아니라 꽃이 된 셈이다. 나비는 꽃을 찾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물 흐르고 꽃 핀다는 스님의 시평은 여기에서 더 실감이 돋는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육바리밀을 춤으로 형상화한 '선무가:바라밀다-1997'.

'行禪의 원리' 춤으로 형상화
이선옥씨 '바라밀다' 공연… 14·15일 예술의 전당

재미안무가 이선옥교수(뉴욕대 무용과)가 행선(行禪)의 원리 그대로를 춤으로 형상화한 '선무가 바라밀다-1997' 공연을 갖는다. 오는 14, 15일 양일간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모두 6부로써 진행된다.

1부 보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림과 중생의 평안을 위한 염불공양 결인법을 춤으로 형상화하고, 2부 지계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욕심과 유혹, 갈등을 선무를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이 소개된다.

3부 인욕에서는 염불과 목탁 징 괭과리 북 등의 악기와 음성공양을 통해 수행하는 모습이 춤으로 엮어지며, 4부 정진에서는 재난과 천재지변에서도 자기의 중심을 잃지않고 참선을 통해 자신을 찾는 수행과정이, 5부 선정에서는 삼매의 경지에 몰입해 가장 맑고 깨끗한 진리자리에 도달하는 모습이, 6부 지혜에서는 깨달음, 진공묘유의 자리를 표현하며 장엄하게 마무리된다.

이번 공연에는 이선옥교수가 이끄는 뉴욕선무용단과 지난해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된 워크숍을 통해 새로 조직된 선무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미국작곡가 죠셉 첼리의 음악과 사물놀이의 반주, 스티브 로젠탈의 무대예술, 김희자씨의 설치예술이 어우러져 종합예술로서의 이색공연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2)765-7951(104)

황충상씨 불교소설 '無明草' 출간
'삭도' '사바에 와서' 등 단편 7편 묶어

소설가 황충상씨가 그간 발표한 불교소설중 일곱편의 단편을 묶어 소설집 〈無明草〉를 펴 냈다(작가정신 刊).

작가 자신이 한때 수행자로 지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번 소설들은 중생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중생이라는 화두를 갖고 쓰여졌으며, 7편의 단편들을 통괄하는 주제는 무명을 벗으면 중생이 곧 부처라는 작가의 확신이다. 내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한국화가 조향숙씨의 그림이 칼라로 수록돼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무명초'는 식물인간이 된 불화의 대가 해봉화백의 육체적 죽음의 현상을 통해 인간삶의 있음과 없음을 구별짓는 것이 곧 무명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삭도'는 한때 종단의 핵심이었던 무소스님이 자신의 정수리에 삭도를 내리꽂음으로써 극단의 초월의지를 보여주는 작품. '사바에 와서'는 환속한 재가승이 세속의 오랜 방황끝에 가사를 태우면서 환속의 생과 출가의 생이 다르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데 참불자로서의 길이 있음을 깨닫는 내용.

'화택'은 미망에 싸여 욕망의 불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불을 끄지 않으면 중생은 불길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불타는 집에서 한아이를 구하고 살신한 한 남자의 이야기. '실족'은 한 인간이 가진 욕망과 금욕의 첨예한 대립을, 한여인의 죽음과 스님의 자살을 통해 적나라하게 표현, 중생의 두마음, 선과 악의 갈등을 대비함으로써 중생의 실상을 보여준다.



'사리'는 고승의 입적후 사리를 찾아헤매는 중생들을 통해 허상에 집착하는 중생심을 버리지 않고는 사리의 의미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깨우침을 주고 있으며 '무색계'는 백혈병으로 죽은 여고생 혼과 창녀의 사생아로 태어나 간질병으로 죽은 한 남자 혼의 방황을 통해 무명세계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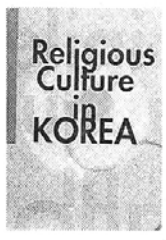
부산 '동다송문화원' 18일 개원

부산에 전문 전통문화교육도량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개원한 동다송문화원(원장 박수자) 1층에는 한복디자이너 허영씨가 한복코너를 마련, 우리옷바로입기 일요특강, 우리의상발표회 등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2층 송풍암은 판소리 다례실기 공간, 전시회장으로 쓰이고, 3층 죽로지실은 차문화이론, 전통예절 및 다례실기, 꽃꽂이, 한국무용, 도예 등의 교육공간으로 활용된다. 회원제로 운영될 동다송문화원은 특강과 현장답사도 실시한다. (051)621-8648~9

'한국의 종교문화' 영문판 발간

문화체육부는 우리나라의 종교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영문판 책자 〈Religious Culture in Korea(한국의 종교문화)〉를 펴냈다.

개론부분에서는 한국종교의 현황과 특성, 종교의 역사, 오늘날 각 종교단체의 사회활동 등 한국종교문화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다루었고, 불교를 비롯 각 종교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문화재 등이 전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관련 도표와 칼라 사진도 함께 실었다. 비매품.



문화소식

진진욱씨 '촛불' 펴내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 부산경남지부장 진진욱씨가 시와 찬불가를 함께 엮어 〈촛불〉이란 제목으로 첫 시집을 펴냈다. (도서출판 대한刊)

이번 시집에는 '혜안' 연작시 89편과 '형상, 미륵보살님' 등 찬불가사 9편, '귀의삼보' '거룩한 임이시여' 등 진진욱씨가 작사한 찬불가 10편 등이 실려있다.

바라춤등 민속춤 공연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설날맞이 특별행사로 오는 8·9일 전통민속춤공연 외줄타기 공개방송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특히 오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전통민속춤공연에는 승무 바라춤 태평성대 등이 펼쳐진다. 에버랜드에서는 또한 오는 9일까지 석가탑 다보탑 등 세계 유명얼음조각품이 선보이는 '세계유명탑 얼음 건축전'이 열리고 있다. (0335)30-8341

'불교문예' 겨울호 나와

전문불교문학지 계간 〈불교문예〉 겨울호(통권 제3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박희진 이성선 오세영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50인 특집 △조종현 작품론 △〈님의 침묵〉속에 담긴 만해의 시세계 △한국수필문학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소견(한상렬) 등 다채로운 읽을거리가 실려있다. (02)308-9520

유물전시관 토요강좌

문화재관리국 궁중유물전시관에서는 제5회 특별토요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오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월 2회(둘째, 넷째 토 14:00~15:30) 개설되는 이번 강좌는 불화속의 담긴 신앙세계, 한국범종의 이해, 민화이야기, 궁중의식과 음악 등 총 20강좌로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한다. (02)753-2582

출가·재가 학인 모집

21세기 불교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접수기간 : 1월 15일~2월 15일 까지
■ 입학자격 : ① 대학이상 졸업자
②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 불교 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자 (특별전형)
■ 모집구분 : ① 출강(부산) 수·금요일 등교
② 통신반(전국) 4째 일요일 등교
■ 교육기간 : 2년(4학기) 출강반·통신반 동일
■ 졸업특전 : ① 졸업증서 수여
② 5종법사 자격증 수여
③ 법화경 연구소 학술위원 위촉
④ 강원(교양대)개원시 지원

※ 자세한 입학 안내서 우편으로 청구하면 빠른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우)701-600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한국승가대학원 교무처
(대)053-952-8711 교수직통 017-501-8711

불기 2541년 1월 일

한 국 승 가 대 학 원
책임교수 최 공 덕

초대의 말씀

신심 깊으신 불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타 종교인으로 부터 수 만평의 땅을 보시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에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1) 양로원을 짓고자 하시는 분
2) 납골당을 짓고자 하시는 분
3) 도덕관을 짓고자 하시는 분
4) 수련원을 짓고자 하시는 분
5) 유아원을 짓고자 하시는 분
6) 대학교 및 병원 또는 불교와 관련된 일을 하실 분

◎ 이곳 사찰을 중심으로 왕방산, 국사봉, 해룡산, 소요산, 감악산이 저희 제일봉을 감싸고 있으며 아래마을은 무학대사께서 남과북의 정중앙이라 하여 비를 남기셨고, 현재는 관광특구 민속마을로 공사중이며 산세는 큰 암닭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형국으로서 주위에 온천수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소승이 손수 지은 조립식 사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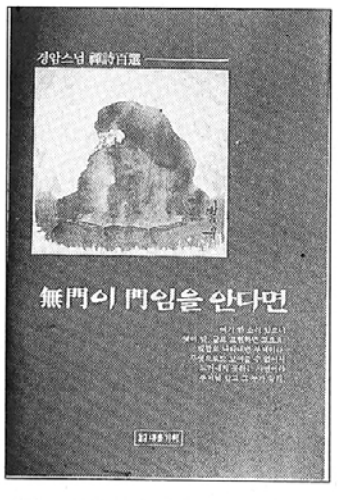
◎ 진실한 불자로서 스님과 함께 생활하실 분은 언제든지 찾아 주십시요
※ 파는 것이 아닙니다. 뜻있는 불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영탑사 도선 합장
전화 (0351)867-4131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 경암 김준현스님 禪詩百選
時調詩로 엮은 깨달음의 詩!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깨칠 것인가를
잔잔한 물결처럼 나직히 일러주는 스님의 목소리…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8만 4천 법문이
꽃 한 송이에 갇힘을 보고

눈 푸른 납자(衲子)는 꿈 깨어
회열로 이말 쳤단다.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네 이마도 안 남으리

경암스님의 시는 간단하면서도
한구절 한구절이 깊이 음미하면
불교인식의 구경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짧은 인생을 길게사는
법을 관념적으로나마 알게된다.
—장이두스님 발문 중에서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정가 10,000원〉

정릉4동 사암련

27년간 자비행

◇정릉4동 사암련은 지난 22일 민덕사에서 설날맞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개최했다.

독거노인 39명에 야쿠르트 배달
환경미화원 내의 선물 '겨울나기'
학생들 장학금·불우가정 쌀 전달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어이구 또 왔구먼, 잘 지내고 있어."

매일 아침이면 찾아오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이재미(89세, 정릉2동) 할머니의 이것 저것을 물으며 관심이 깊다. 김할머니에게 있어서 하루중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릉4동 40여사암중 10여개 사암주지들은 매달 10여만원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관내 독거노인 39명에게 매일 식음료를 전달하고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건강도 체크하며 약값도 보내주는 등 '독거노인 보살피기'에 여념 없다.

이같이 잔잔하면서도 큰 선행은 정릉4등 사암연합회(회장 금동스님. 송암사주지)가 27년여 동안 결쳐온 독거노인돕기, 부처님오신날 불우중·고등학생 20여명에게 장학금주기, 환경미화원들에게 내의및 공양 대접하기, 4개노인정 돌보기, 불우가정에 쌀전달하기등 다양하여 지역에서 칭송이 자자하다.

지난 1월 22일에는 만덕사(주지 무염)에서 설날맞이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열렸다. 환경미화원 27명에게 내의 한 벌과 불우가정 20가구, 관내 4개 노인정 대표 등에게 쌀 24가마를 전달하고 점심공양도 극진히 대접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 금동스님은 "이웃을 돕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보은이다"며 "공식적인 불우학생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스님이 '멍텅구리'라는 민요풍의 노래를 통해 불교의 늙고 병듦, 생사의 이치를 들려주자 모두들 박수를 치며 즐거워 했다. 스님들은 법문보다 추운 곳에서 수고하는 미화원들에게는 "술먹고 속쓰린데는 '유근피'를 먹어라"는 것과 노인들이 많은 만큼 "허리아플때 감자를 갈아 양금을 내어 밀가루 생강을 넣어 아픈 부위에 붙이면 건강하다"는 민간요법을 자상하게 들려줘 어떤 자리보다도 화기애애하다.

정릉4동 정동화동장은 "스님들을 뵐 때마다 환희심이 절로 생겨 행사 때마다 전체 동민이 느끼는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전주 정혜사는 지난 1월 22일 전북불교대학 학사신축 기공식을 거행했다.

스님이 재가교육도량 마련

정혜사 혜일주지 앞장…전북불교대 학사 기공

재가불자들의 숙원사업이던 교육도량 마련에 스님이 발벗고 나서 화제다.

전주 정혜사(주지 혜일·보문종 총무원장)는 지난 1월 22일 효자동에서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불교대학 학사신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혜일스님은 "지역 재가불자 교육을 위해 3.4층을 전북불교대학 학사로 제공한다"며 "이번 불사는 은사이셨던 명주스님의 교육원력을 실현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4층(대지 2백평 총건평 6백평) 규모의 불교대학 회관은 연내 완공되며 3.4층(2백40평)에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전북대 철학과교수) 학사가 들어선다. 이 회관에는 전북불교대학의 법당과 강의실 도서실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98년 개교 10주년을 맞아 문교부에 불교단설대학 인가와 불교전문대학원설립을 추진해 미약한 호남불교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단양 광법사, 무의탁 교포노인 위문

단양 광법사(주지 갈웅)는 지난 1월 21일 사할린 영주귀국 무의탁 교포노인 42명이 머물고 있는 경북 고령 대창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합창단의 찬불가공연등을 펼쳤다.

이날 위문은 광법사 합창단원들이 1월7일과 13일 구인사에서 생강차와 컵라면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노인 42명 모두에게 용돈을 전달하고 양로원에도 연료비를 전달했으며 준비해간 떡과 과일을 공양하며 찬불가공연등을 펼쳐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지 갈웅스님은 설법을 통해 "지금은 비록 어렵고 고달프게 살아가지만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처님의 자비스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종단소식

3개과 신설개교 확정
동방대 설립재단 이사회

태고종 태고학원(이사장 인곡스님)은 지난 1월 28일 총무원 3층회의실에서 11명의 이사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불교학과 단일과로 출범키로한 동방불교대학을 불교미술과 불교음악과 3개학과 신설로 변경하는 개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

이사회에서는 98년 3월 개교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학교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이사후원금과 재정확보방안을 논의했다.

"北 핵폐기물 안된다"
종단진흥회 성명

대한불교종단진흥회(회장 일공)는 지난 1월 28일 대만 핵폐기물 북한수입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핵폐기물 매입협정서 폐기를 촉구했다. 진흥회는 "2천만 불자가 앞장서 핵폐기물 북한 매립을 분쇄하여 통일조국의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주자"고 밝혔다.

불교방송 '경리사고'

115억 규모…대책 부심

불교방송은 2월 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경리부 김선도차장과 김현안씨가 공모한 115억원규모의 대형 경리사고에 대한 조속한 수습대책과 앞으로의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월 30일 현재)

불교방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28일 사건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영배스님 심의실장)를 구성하고 자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30일에는 사건수습대책위원 손경현씨(기술부)를 김차장의 피신처인 베트남으로 급파해 사건 수습에 나섰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김선도 차장과 김현안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약속어음 29매 액면가 73억8천만원 상당을 현금할인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외환은행 마포남지점에서 교부받은 백지약속어음을 위조해 4억9천5백만원짜리 가짜 약속어음을 발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4억7천만원으로 할인받는 등 14차례에 걸쳐 모두 42억1천만원을 현금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사건으로 인한 불교방송의 실제 피해액은 1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내 사원간의 보증등으로 인한 개인피해도 17명 4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교방송 경리부 김현안씨는 지난 1월 25일 검찰에 구속됐으며 김선도차장은 수배중이다.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선상신기자 선출

불교방송 노동조합이 지난 1월 29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위원장에 선상신기자를 선출했다.

전체노조원 61명중 46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편성국 부위원장에 박상필PD, 기술국 부위원장에 이상숙씨, 관리국 부위원장에 김병남씨를 각각 선출했다. 또 노조사무국장은 박원식기자(보도부), 회계감사는 백낙찬(기술부), 이응진차장(편성국)이 맡았으며 김학주PD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를 김상준PD가 여성위원회 간사를 각각 맡았다.

프랑스인 이다도시 초발심

btn '김병조의 이야기쇼' 2월 10일 방송

한국남자에게 시집와 생소한 이국생활에서도 소탈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또 TV 인기프로그램을 통해 친근해진 프랑스인 이다도시가 불교TV '김병조의 이야기쇼'에 출연 대대로 불교집안인 남편에게 시집와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불교에 관심을 갖게된 초발심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방송은 2월 10일 낮 12시10분.



◇톡톡 튀는 특유의 억양으로 이다도시는 불교와의 인연에 대해 솔직담백하게 이야기 했다.

볼거리 설날특집 들을거리

온가족이 함께하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불교TV와 불교방송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불교TV 생방송 '날마다 좋은날'(7일 오전 10시 20분)은 새해인사와 함께 희망찬 소식과 따뜻한 사연을 전한다. 개그맨 조금산씨가 지리산 천왕봉의 예치마을을 찾아 그곳에서 생산되는 대나무 복조리를 소개하고, 명절을 맞아 고국이 더욱 그립기만 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상도 소개해 그들과 함께 따뜻한 설날을 함께 나눌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계획. 또 우리의 전통한과와 떡제조방법도 알려줄 예정이다.

반항심 많은 소년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참자아에 눈뜨는 과정을 그린 청소년 성장만화 '청춘별곡'(7일 오후 1시5분)도 방영된다. 불상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조각일을 하는 아관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반항적인 성격이 되버린 사춘기 소년. 불교를 접하게 되면서 점점 착한 아이로 변모해가는 아관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만화영화로 펼쳐진다.

웃음 가득한 즐거운 설날아침을 열어 줄 놀이 한마당 '설날특집 게임쇼, 야단법석'(8일 오전 10시)은 특히 눈여겨 볼 만한 프로그램. 탤런트 민욱, 김형자, 강석현, 영화배우 방은희, 개그우먼 김성은, 리포터 조영구, 슈퍼모델 주정은 등 인기연예인들이 펼치는 게임과 팔도소올음을 경연대회 등 재미있는 놀이가 벌어진다. 영화화면속에 숨어있는 설날과 관련된 물건 찾아내기등 시청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임도 마련돼 있다고.

관소리 다섯마당중의 하나인 심청가 일부를 전통창을 바탕으로 마당극 형식으로 재구성한 '설날특집 마당극 서울 뺑파'(8일 오전 11시)도 방송된다. 효심이 지극한 심청이의 성품과 악역인 뺑파를 대비시켜 권선징악을 해학적으로 표현해 보여준다.

BBS 우주질서와 하나되는 무애자재한 해탈의 세계를 유유자적한 생활로 참다운 자유의 삶이 어떤것인지를 보여주는 선사들의 삶과 일거수 일투족을 이야기식으로 소개, 선사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재미있는 선사이야기'(7~8일 오전 10시5분)가 방송된다.

또한 국악과 팝, 가요등 풍성한 음악으로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10시간 생방송'이 7일~9일까지 방송되고, 보도특집 '특별대담 조순시장에게 듣는다'(9일 오전 7시10분)에서는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올해 시정계획과 조시장의 생활철학, 가족이야기 등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은〉

목탁소리

이 경 숙 〈취재2부 차장〉

13국사님 어디 계신가

송광사 국사전소장 16국사 영정(보물 1043호)중 13점이 도난당한지 1월 27일로 꼭 2년이 됐다. 도난 직후에는 정부와 종단에서 수사본부와 송광사성보도난사건대책위를 구성하고 고액의 포상금까지 걸었으나 두달도 못가 흐지부지돼 회수의지조차 불투명해진 상태다.

성보가 아직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있을 것이라는 담당기관의 추론에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세월만 보냈기 때문에 송광사 성보도난사건이 단순한 문화재 절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때문에 일어났다는 시각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성보도난사건은 심심치 않게 신문사회면을 장식할 만큼 다반사로 일어났다. 절도가 용이할 만큼 관리가 허술하고 방치돼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송광사성보도난을 계기로 문화재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각성이 일어나 마침내 사찰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성보전시관 건립을 국가지원으로 추진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보는 단순히 오래된 문화재 이기보다 불자들에겐 신앙의 대상이다. 보조스님을 비롯해 잃어버린 고려국사진영 13분은 우리가 늘 우러러 사표로 삼아야할 조사님들이다. 그분들을 제자리인 국사전에 다시 모셔야 한다. 그래야 송광사도 승보종찰로서의 위신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교계의 오랜 숙원이던 성보보존위원회가 구성됐다. 성보보존위는 성보문화재의 발굴, 조사, 연구 등 성보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 관리업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인 만큼 대표적 성보문화재인 13국사 영정이 올해 다시 불교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종단과 성보보존위, 송광사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다시 적극 나섰으면 한다. 다시한번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자각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TV나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호신불 백의 관세음보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블루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호출 : 012-303-9207

극락 왕생의 길
佛 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불교식 장례를 대행하여 포교에 기여하고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드는 장례를
저렴하고 장엄하게 진행하여 드립니다.

장례 대행
▶ 재가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대행
▶ 수의 전문 제작, 영결식 기획대행
▶ 스님 장례 전문, 스님 수의 제작
▶ 여자 신도 및 비구니 스님 장례시 여자 보살님이 염을 해 드립니다.
▶ 장지 알선 및 이장 업무
▶ 천막, 파출부, 음식알선
▶ 무의탁 노인 장례 봉사 전문

전국 불교 장의 연합회
광주 불교능인회 : 062-226-5161-4
대구 지장불교상조(주) : 053-654-0055
부산 관음손마을·장의부 : 051-818-6511-2
서울 대한 불교연화회 : 02-732-9618-9

二軾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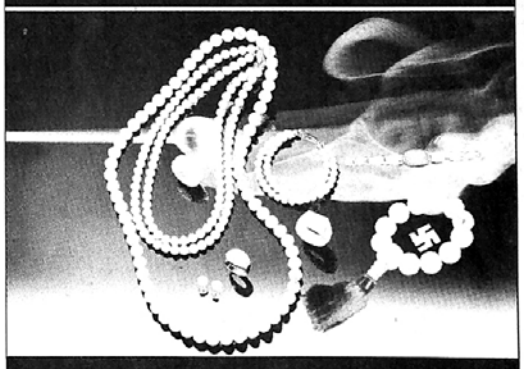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요!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 스트레스나 피로에 쌓인 직장인, 수험생에게…
★ 4,50대 주부의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 장타력, 집중력, 관단력 골프머리가 잡혀갑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들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이국 제10회 국제일용품전시박람회
*목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현불뉴스

길상사 6월 착공 연내 개원

길상사(주지 청학)는 지난1월 29일 동아일보사 동아클럽에서 창건준비모임을 갖고 연내 개원을 목표로 구체적인 불사계획을 발표하는등 불사모연에 들어갔다. 이날 창건위원회는 길상사를 △인재양성의 교육도량 △승속이 함께 경영하는 운영체계 △봉사할 보살대중의 큰 터전 △서울시민의 수련도량 조성 등에 역점을 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김종서(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윤용숙(여성문제연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 제2 '자비의집' 개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구지부(지부장 무공)에서 운영하는 노인무료급식소인 자비의 집이 또하나의 공간을 마련 지난 1월27일 개원식을 가졌다.

대구 서구 평리동 아동청소년상담소 지하 40여평에 자리한 제2 자비의 집은 매주 월·화·수요일에 노인을 대상으로 점심공양을 대접한다.

한편 대구 자비의 집은 지난 94년 8월 문을 연후 매일 150여명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공양을 내왔다.

〈대구=이윤호 기자〉

성철스님 생가 복원키로

성철스님의 생가가 복원된다. 성철스님기념사업재단 원택스님(해인사)은 지난 1월28일 경남 산청군청을 방문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성철스님의 생가터를 복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철스님기념사업재단측은 이미 생가 터 및 주변부지 3천5백평을 매입했으며 2월중 복원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산 진여원, 불교회관 마련

진여원(원장 이기표)이 지난 1일 부산시 구포 대한예식장 3·4층에 불교회관을 마련하고 개원했다.

진여원은 결식노인에게 급식제공과 영세민에게 예식장 무료제공을 비롯 사경교실 노래교실 등 문화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전승련 백서 발간 추진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의장 원돈)은 지난 1월 24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전승련백서를 발간키로 결의했다.

'전승련,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발간되는 전승련백서에는 전승련 강령, 강원소개, 졸업이후의 진로, 각 단체 주소록 등이 수록된다.

광주불청 6대회장단 출범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지구장 이주성)는 지난 1월 25일 관음사에서 제6대 광주불청 출범식을 개최했다. 천운(대문사 주지) 현고(송광사 주지)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6대회장에 취임한 이주성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실천과 정진으로 회원들과 함께 열어가는 광주불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장애인 포교 '움트는 새싹'

천태종 금산사 장애인복지관 설립 청계사 녹향원 인수 추진

증평 전주 의왕시에 잇따라 불교계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장애인포교가 활짝 필 전망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과 금산사(주지 도영)는 최근 증평과 전주에 각각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연내 설립키로 했다. 또 청계사(주지 지명)도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의왕시 녹향원을 상반기에 인수키로 했다.

천태종은 충북 증평읍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연내 설립키로 하고 부지매입및 설계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재활시설은 물론 양로원등 보호시설도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으로 개관된다.

이와 관련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종합복지관 설립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겠다"며 "2천년대를 맞아 도심권부터 단계적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본격적인 사회복지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도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생력을 길러주기위한 불교사회종합복지관을 설립한다. 오는 2월중순 착공할 불교사회종합복지관은 전주시 용복동 대지 1천8백여평에 건평 180평 지상 2층 건물 2동에 장애인 이용시설인 목욕탕 이발소를 비롯하여 자활의 토대가 되는 기술학습장 작업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장애인들의 모임인 전주 곰돌이자원봉사대와 연계해 복지시설을 다각도로 운영하고 장애자 노인 보호시설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은 "불교사회복지시설은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종합복지시설로 키워나가겠다"며 "사회복지관 개관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체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 청계사는 사찰에서 1㎞거리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자 복지시설 녹향원 인수를 추진중이다. 현재 원장인 조명호씨와 인수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청계사는 자폐증 다운증후군 환자 수용시설 녹향원을 여법하게 운영하여 불교사회복지사업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경승단 창립 10주년

경승단(단장 혜창)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월주 홍파 인곡스님을 비롯 김우석 내무부장관 황용하 경찰청장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법혜(부산 중부서) 성일(부천 남부서) 진주(서귀포서) 홍선(경찰청) 법륜(인천지방경찰청)스님이 우수경승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지상 2층 지하 1층 140평 규모의 대원정사 대적광전이 낙성됐다.

제주 대원정사 대적광전 낙성

11억원 투입…법당·노인정·어린이집등 마련

제주 대원정사(주지 일조, 대한불교 법화종 제주교구 종무원장)는 지난 1월 18일 대적광전 봉불낙성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법화종 종정 구암스님을 비롯 금파(원로회의 의장) 중원(제주불교총연합회장) 혜관(법화종 제주교구 법주)스님과 전국 14개 교구 종무원장, 양정규국회의원, 신철주 북제주군수 및 관내 기관장, 신도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창건 22년만에 중창 낙성된 대적광전은 지상 2층 지하 1층 1백40여평의 규모로, 1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대적광전은 법당으로뿐만 아니라 지하층을 노인정 어린이방 연회장 등 다용도 공간으로 건립한 것이 특징이다.

대원정사 주지 일조스님은 "제주민과 함께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대원정사가 법당 중창불사를 계기로 제주불자들의 신심을 고양하고, 소외된 이웃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필선 기자〉

중앙신도회 3월15일 창립

조계종 총무부장 혜창스님(각급 신도회구성 추진실무단장)은 지난 29일 총무원 4층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 총무국장회의에서 "중앙신도회 창립법회를 3월 15일 봉행할 예정"이라며, 미구성 교구 신도회 결성을 2월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총무원은 21일 전국교구신도회 구성 1차 마감, 22일 직할교구(조계사) 신도회 창립, 23일 교구신도회장 상견례 등의 일정을 제시했다. 교구신도회장 상견례에서는 중앙신도회 회칙안 및 창립법회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혜창스님은 또 송모씨의 중앙신도회장 내정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원칙이나 회장영입 문제로 중앙신도회 창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득이 원장스님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현재 창립된 교구신도회는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등 10개 교구이며, 미구성 교구 가운데 해인사 법주사(3월6일 창립예정)를 제외한 조계사 수덕사 동화사 등 12개 교구신도회는 2월중 창립 예정이다.

'자비탁발' 내달 26일 전국실시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협조 요청…주요도시서 일제히

조계종총무원(총무원장 월주)은 '이웃과 민족을 위한 자비의 탁발'을 오는 26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24개 교구본사 관할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총무원 사회부장 능관스님은 지난 1월 29일 총무원 4층회의실에서 열린 교구본사 총무국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든 불자들이 참여하여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교구본사의 사정상 26일 실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3월 4일까지 실시토록 했다.

서울의 경우 2월 26일 오후1시 조계사에서 '탁발의 날' 선포식과 함께 탑골공원 압구정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동대문시장 명동 등 6개 지역에서 탁발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소임자스님과 직할사암 주지, 중앙승가대·봉녕사 학인, 국제선원 등 2백여명의 스님과 자원봉사자 2백60여명이 발우를 들고 거리탁발에 나선다.

능관스님은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성금 모금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탁발행사는 모금액수보다 중생들과 함께 하는 수행자상 정립에 목적이 있다"며 "모금된 성금은 북한동포 및 귀순불자, 중국조선족동포, 국내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진다"고 밝혔다.

도선사 청소년수련원 세운다

일주문 옆 상가건물 헐고 연내 착공

서울 우이동 도선사(주지 동광)는 청소년 포교에 매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지하1층 지상4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한다.

일주문옆 상가건물을 헐고 건평 8백 44평에 들어서는 도선사 청소년수련원은 6백 30석규모의 대강당, 3백석규모의 중강당 세미나실 도서관등이 다양하게 갖춰진다. 도선사는 수련원 건립을 청소년체육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도선사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심신을 맑게하고 대규모 강당과 세미나실 등 시설을 통해 문화행사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북돋아주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광스님은 "천혜의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현대식 시설을 두루갖춘 청소년 포교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음 고통과 기쁨 나오는 곳

모든 고통과 기쁨은 마음에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를들어 행복이란 잘나고 못나고에서 비롯되는게 아니라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잘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잘나려고 하는 마음까지 죽여어 보라.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96년도판 현대불교합본집 발간

1996년 한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을 묶은 〈96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를 제시해 온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96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주 큰스님들의 법문을 읽을 수 있고, 정확한 불교계뉴스, 사회 제반문제에 대해 불교적 해답을 주는 명쾌한 칼럼, 불교계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여론마당, 명사들의 수행일기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그리고 신행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하시기를 권합니다.

■ 수록내용: 1996년 1년분 (60호~108호)
■ 가격: 5만원(우송의 경우 별도의 발송비 5천원이 추가됩니다)
은행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현대불교)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협 053-01-227471
· 우체국 010041-0255243
■ 문의: 현대불교신문 기획관리부 (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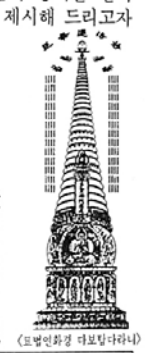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100분의 스님을 모십니다"

①전국 100군데 시·군단위로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 한 분씩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②신비의 불탑다라니는 현재 각사암별로 스님들께서 스님 신도들에게만 보급하고 있아오나 100분의 스님들께는 지역내의 전불자들에게 불탑다라니의 영험과 공덕을 알리고, 큰 부담없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이 방법은 불사에도 도움이 되고, 신도포교에도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③전화주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내용을 검토하신후 여건이 합당하시다는 판단이 되시면 연락주시는 순서대로 일자를 정하여 직접 찾아 뵙겠읍니다. 한 지역에 한 분 스님께만 정책적인 배려를 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신탑다라니〉


〈도법인화경 대보탑다라니〉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록!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계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다다라니안에 적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십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방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이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십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보은의 선물·감동의 선물
최고의 건강 선물
역시 산삼입니다

長腦 山蔘

존경하옵는 불자님께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불을 축원드리오며 지난해 힘들고 지친 심신을 새상품 산삼으로 기력 회복시켜드리고자 보시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사오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장뇌산삼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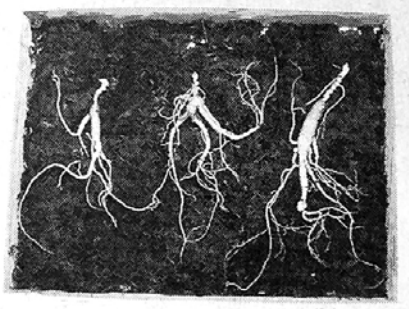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蔘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蔘을 통해 山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로 경이적입니다.

'겨울철' 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207-8387
0346)591-3989

홍천임업협동조합 공급하는
10~30年根 수량제한 한정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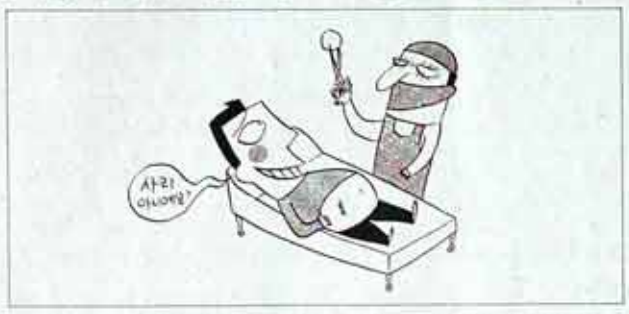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물량 홍천 임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어 가짜로 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체주문 및 선물용이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급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건강백세 ㊴

큰 창자 - 맹장

대장은 소장에서 넘어온 음식물의 찌꺼기를 처리해주는 창자로 소장에 비해 굵기가 커서 대장으로 이름지어진 것 같다. 소장과 연결 되어진 부분은 맹장(盲腸)이라고 부르며 맹장을 지나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상행결장(上行結腸)이라고 부르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좁은 소장에서 직경이 갑자기 커진 대장에 들어서면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대장에서는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곳 맹장과 횡행결장에서는 역연동이 나타나며 속도를 조절



세균·외부충격·식중독등 맹장염 원인
하늘수박 이용한 민간요법 소염효과

해주게 된다. 맹장은 그 기능이 없다 하여 맹장이라고 명명(命名)되었다는 속설도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볼때 맹장 이래부분인 충수(蟲垂·벌레모양)가 마치 깊은 함정(陷穽)모양으로 들어가 있어 맹장이라고 불리게 됐다고도 한다.

맹장의 기능에 관해서는 한의학에서는 한열조절작용(寒熱調節作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외부의 온도에 따라 수분의 흡수정도를 조절하여 체온이 유지되게 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맹장의 역연동의 조절에 따라 결장으로의 통과속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또한 대장(大腸)을 폐(肺)와 표리(表裏)관계로 설명하는데 역시 폐의 호흡을 통한 수분조절로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생태학적으로 볼때 집토끼에 비해 산토끼의 맹장이 훨씬 큰것을 보면 짐작 할 수 있다. 문명의 발달로 보온이 잘되게 된 이후로 한열조절기능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인간의 맹장 크기도 점차 퇴화되어 더욱 작아지고 그 역할 조차 무시하게 된 것같다. 여름철에 무리한 냉각으로 일어나는 맹장염의 증가라든지 맹장을 수술한 사람들이 학질이나 식중독 독감에 더 힘들어하는 예를 임상에서 볼 수 있다. 흔히 맹장염으로 알려진 이곳의 염증은 충수염(蟲垂炎)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벌레모양으로 생긴 충수는 혈관과 림프가 발달된 곳으로 염증이 생기면 통증과 발열을 일으키고 악화되면 오한과 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결국 화농(化膿)되어 터지게 되면 복막염(腹膜炎)이 되어 생명까지 위협하므로 터지기 전에 조치해야함은 물론이다. 예전에는 돌같은 이물질이 걸려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리한 물질, 식중독등 오염물에 의한 감염, 타박으로 인한 충격, 회충등 기생충 감염, 기타 세균감염으로도 발생한다. 급만성의 구별은 의학적 의미가 없으며 진행정도에 따라 조치속도에 차이는 둘지언정 정확하게 치료해 주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소염(消炎) 배농(排膿)시키면서 열을 조절해주는 약재를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수술 일변도로만 치닫던 서양의학에서도 최근에는 항생요법(抗生療法)을 통한 국소 소염 및 대증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의학과 민간요법에서 많이 사용했던 하늘수박은 탁효를 갖는 소염항생효과를 내는 약재이다. 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체질에 맞춰 전문 한방요법을 통해 충수염을 치료하는 경우도 많다.

윤 읍 상 〈한의학 박사〉

새싹들에게 주는 약 ④ ·〈끝〉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그림 · 이준석

"마음가다듬기 · 효심일깨우기 등 부처님 가르침 생활속에 퍼다보니 '좋은약 선생' 별명 얻었어요"

하루는 법당에 앉아 "부처님 저 이제 학교에 사표 내고 부처님 전에 기도 정진만 하겠습니다"하고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니야, 사표내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이지, 해마다 새로운 많은 아이들과 학부형과 교사들을 만나면서 불심을 심어야지,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작은 기도야!"하시며 미소지으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은 포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심어주는 일이야."

해마다 새 학년이 되어 담임을 하면 우선 생활기록부 종교란부터 봅니다. 불교를 믿는 아이들이 몇명이나 되나? 타 종교와 비교해 불교신자 수가 열세(?)라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의 불심 정도를 관심있게 살펴보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형들과 무교라고 적은 엄마들에게 여러가지 근기에 맞는 불경을 보시했습니다. 기도법을 일러주고, 수없이 가피받은 나의 신행담을 들려주고, 같이 절에 다니며 아이들은 어린이 법회에 인도해 주어 매주 절에서 만나곤 합니다. 제가 혹시 어쩌다 절에 못나가면 "선생님, 왜 절에 안 오셨어요?" 하며 이끌어주는 귀여운 도반들이기도 합니다.

작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제가 포교한 어린이들이 '화동', '동자승'으로 뽑혀 제등 행렬에 참가해 많은 불자들로 부터 귀여움을 독차지 했었습니다. 천진스럽고, 맑은 웃음 지으며 승복입은 동자승 '한비'가 너무나 거룩해 보였습니다. 87년부터 96년까지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에는 꼭 동참했습니다. 많은 불자들의 단합됨을 보이기 위해 저는 불론 많은 사람들을 동참하게 했습니다. 모든 행사를 끝내고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제등행렬에 동참할수 있게 시간을 주셔서…"

1학년을 담임할 때면 첫 아이인 경우 동생을 볼 계획이 있는 젊은 엄마들에게는 큰스님들께 배운 '좋은 아이 만드는 법'과 태교법을 가르쳐 주고 태교책을 보시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낳아서 힘들게 기도하며 키우지 말고 정성껏 기도해서 낳아 나라에 큰 인물로 키우자고 지도했습니다.

물론 후배 젊은 교사들에게도 알려주고 실천하게 하여 낳은 아이들이 여러명입니다. 모두 잘 자라고 복된 불자들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면서 가끔씩 태만하지 않게 추스려 주기도 합니다.

친구와 학부모회 간부등 많은 타종교를 믿던 부형들을 절로 인도해서 기초 교리반 수료후 불교 대학을 졸업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모습들을 보며 오늘도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동안 스님들께 들었던 법문과 불교 방송을 들으며 메모해 두었던 법문들을 92년부터 아이들에게 맞게 '좋은약'이라는 이름으로 들려주어 인성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저를 '좋은약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5월에는 〈부모은중경〉을 자세하게 일러주며 효심을 가르치면 감정이 여린 아이들은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해요, 선생님, 엄마 보고 싶어요"하며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덩달아 따라 울어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일기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인을 받아 오게 했습니다. 그 일기를 통해서 부모님들까지도 간접 교육이 되면서 감사 편지를 보낸 학부형도 있었습니다. 자기도 몰랐던 것을 아이의 일기를 보고 배웠다고요. 94년에 6학년을 졸업한 아이들이 97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도 가끔 전화로 소식을 전합니다. 공부가 안될때는 '마음 가다듬기 운동'을 하고 선생님이 주신 비싼 '좋은약'의 가르침 대로 실천하고 생활해서 성적도 올랐고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전화를 받았을때도 저는 또 합장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곧게 자란 나무처럼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랄 것을 의심치 않으며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앞으로 더욱더 정성스럽게 전법, 정진하겠다는 각오로 우리나라의 불교 중흥과 정토건설을 기원합니다.

이 영 자
〈서울 강북구 수유 5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⑲

♦ The man who having penetrated the world, sees the highest truth, such a one, after crossing the stream and sea who has cut off all ties, is independent, free from passion, him indeed the wise style a Muni.

세상 이치에 막힘없이 통달하고 최고의 진리를 알는 사람,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을 현자들은 성인으로 안다.

♦ Two whose mode of life and occupation are quite different, are not equal: a householder maintaining a wife, and an unselfish virtuous man. A householder is intent upon the destruction of other living creatures, being unrestrained; but a Muni always protects living creatures, being restrained.

출가자와 재가불자의 거처와 생활은 아주 다르다. 재가불자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이타적이며 덕이 있는 이(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것이라는 집착이 없다. 재가불자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지켜준다.

♦ As the crested bird with the blue neck the peacock never attains the swiftness of the swan, even so a householder does not equal a Bhikkhu, a secluded Muni meditating in the wood.

벗을 세우고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빨리 날아가는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재가불자는 숲속에서 명상하며 은둔하는 성인이나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penetrate (v) 꿰뚫어 보다, 간파하다, 통찰하다
*two는 재가자와 출가자를 지칭한다.
*householder (n) 재가불자
*occupation (n) 거주, 거처
*unselfish (a) 이타적인, 사리사욕이 없는
*virtuous (a) 덕 있는, 고결한
*unrest (a) 어념없는, 열중하여
*secluded (a) 은둔한, 세상에서 격리된
*gone (n) 뿔
*swiftness (n) 신속, 빠름

오종욱 기자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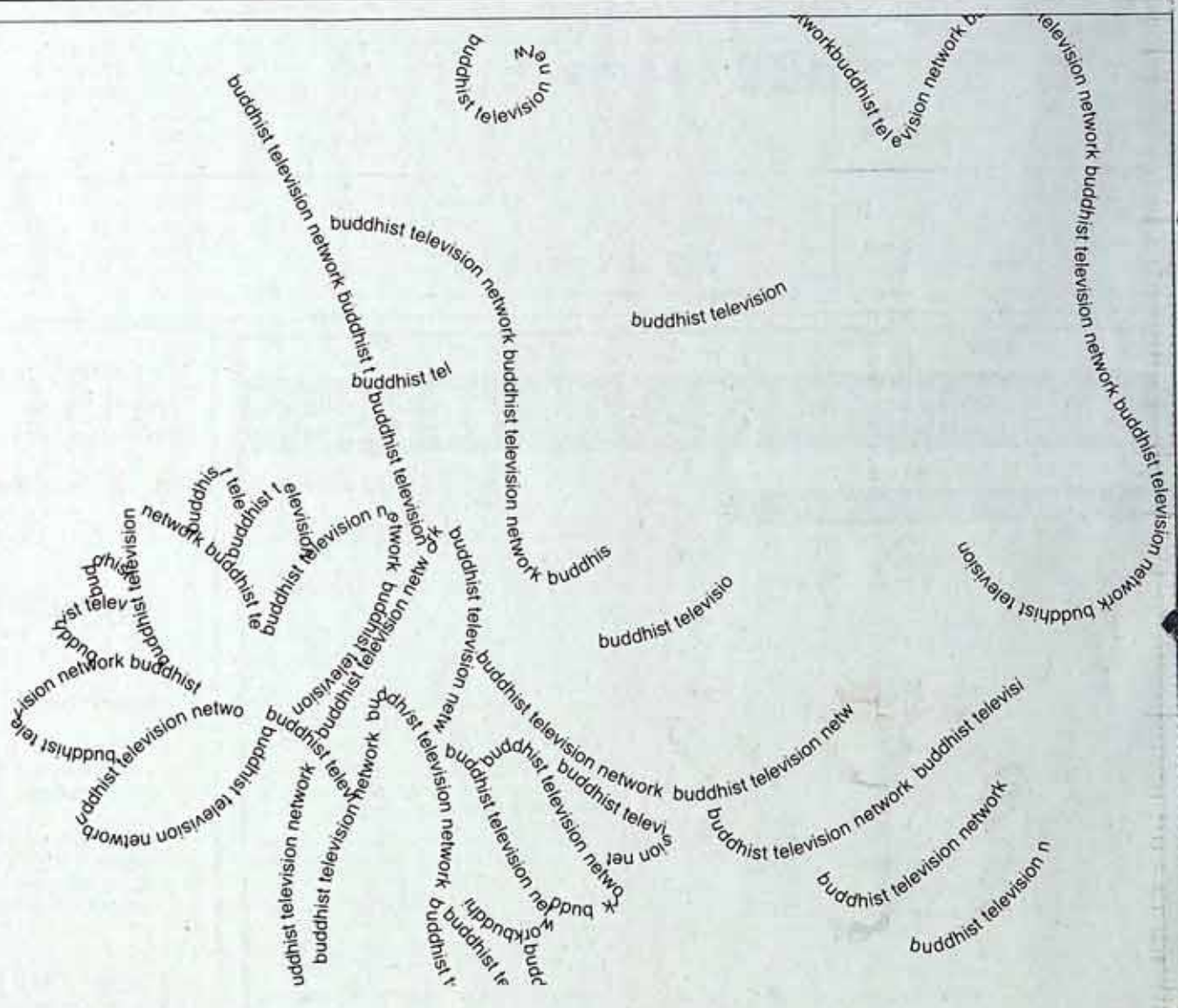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청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기 간 : 96. 11. 1 ~ 97. 2. 20
■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등 참액수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케이블TV 설치 문의처
• 서울지역 강남케이블TV 강남구 도곡-3000 | 강동케이블TV 강동구 4747-115, 강서케이블TV 강서구 3663-1414 | 구로케이블TV 구로 공전구 830-8300 | 관악케이블TV 관악구 877-6000 | 노원케이블TV 노원구 934-3366 | 동대문선important동대문구 215-0114 | 동작케이블TV 동작구 823-2121 | 동서울케이블TV 성동 광진구 499-6000 | 동작케이블TV 동작구 824-8080 | 마포케이블TV 마포구 717-1125 | 미래케이블TV 도봉 강북구 999-5555 | 북부케이블TV 성북구 942-0081 | 서울케이블TV 서대문구 365-0181 | 서초케이블TV 서초구 525-8852 | 송파케이블TV 송파구 418-3000 | 은평케이블TV 은평구 388-8000 | 중앙케이블네트 종로 중구 763-6781~3 | 한강케이블TV 영등포구 639-3200 | 한국통신케이블TV 양천구 645-2222 **부산지역** 금정케이블TV 금정구 515-6140 | 남부케이블TV 감서 사상 북구 326-9112~6 | 동남케이블TV 남 수영구 620-5000 | 범천미륵선importdb북지 주산진구 640-8586 | 부산케이블TV 동부 연제구 555-6300 | 서부산케이블TV 서 사하구 293-6300 | 유무선종합유선방송 공 동 영도구 412-0666 | 태은대케이블TV 해운대구 746-1122 **대구지역** 금호케이블TV 북구 953-6000 | 동부케이블방송 동구 986-7777 | 대구케이블네트 중 남구 656-5555 | 서대구케이블TV 서구 567-6000 | 수성케이블방송 수성구 768-8888 | 우전방송 달서구 631-2000 **인천지역** 남동케이블TV 남동구 422-4757~8 | 남부종합유선방송 연수 남구 876-0327 | 태인천케이블TV 부평 계양구 551-8300 | 서인천케이블TV 서구 562-3211~4 | 서해종합유선방송 강 동구 761-9999 **광주지역** 광주케이블넷워크 동 북구 512-6433 | 광주케이블TV 산호 서 남 광산구 370-5700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 대덕 동구 673-3333 | 한밭케이블TV 동 서 무수구 222-8350~1 **기타지역** 수원방송국 수원 257-4011~9 | (주)금형케이블TV 충천지 충천 철원 화천 양구군 242-2131~2 | 청주종합유선방송 청주시 청원군 271-3000 | 천안케이블TV 천안시 천안군 557-9981~4 | 전주케이블TV 전주시 완주군 250-6500 | 서남방송 목포시 신안 무안군 76-7777 | 경포케이블TV 포항시 울릉 경일군 251-7777 | 경남케이블TV 창원 진해시 67-6900~4 | 제주케이블TV 제주시 제주군 41-7777